태백문화

2016 통권 제28집

http://www.taebaekculture.com

태백성좌와주목

사진작가 전제훈

태 백 문 화 원

태백문화
2016 통권 제28집
http://www.taebaekculture.com

태백성좌와주목

사진작가 전제훈

CONTENTS

006 · 발간사 _ 김해운 원장

007 · 축 사 _ 김연식 태백시장

008 · 축 사 _ 심용보 태백의회 의장

태백문화 그 현장 ■ 09

010 · 단군기원 4349년 태백산천제

011 · 낙동강발원제

011 · 낙동강발원 채수제

태백문화학교 ■ 12

012 · 건강기체조반/가요반/하모니카반/전통가락반/색소폰반/
중국어반/라인댄스반/토들러동작놀이 I 반/ II 반

문화사랑방 ■ 17

017 · 자수, 수예 반

문화학교 개강식/수료식/발표회 ■ 18

나눔의장 ■ 20

020 · 어르신문화프로그램

021 · 찾아가는 문화활동(2018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와 문화올림픽 준비를 위한)

022 · 2016강원어르신문화대축전

022 · 2016향토문화연구발표회

023 · 2016강원문화대축전 〈도지사 · 도의장 표창〉

사진초대석

천제은하

천제단과성좌

작가 **전제훈**
한국사진작가협회회원

내게 있어서 사진은 행복이다.
별들의 밀어를 사실적이며 미학적 시각으로 담고자 별을 찾아 수없이 오르던 밤길이 내게 있어서는 행복이었다.
별과의 감정이입을 통해 나 또한 행복을 찾게 되었고 이 행복을 다 함께 나누고 싶어 사진으로 표현 하고자 합니다.
– 전제훈 사진전 "The starry night & milky way" 중에서

김 해 운

태백문화원장

한 해가 저무는 이 맘 때는 언제나 아쉽고 분주해 집니다.

우리 태백문화원의 한 해의 마무리와 그 결과를 정리해서 또 다시 새로운 한 해를 계획하고 준비해야하는 시기가 왔습니다.

늘 부족한 가운데서도 공과를 가려서 새로움을 모색해야하는 중요성은 누구나 인식하고 있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모든 것이 문화이고 예술입니다. 어느 특별한 것을 정해 놓고 문화냐 예술이냐를 따지는 것은 이제 무의미한 것이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의 삶 그 자체가 모두 문화예술과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보다 향상되고 풍성해 지는 것은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단한 노력과 열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우리 문화원에서 진행하는 문화학교와 그 외 모든 프로그램들의 그 성과가 값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나온 한해를 돌이켜 볼 때 만족하기도, 부족하기도 할 것입니다. 넘치는 것은 나누고 부족한 것은 채우는 가운데 우리는 소통하며 함께 살아갑니다.

한해를 기록하는 이 한권의 태백문화28집은 우리들 삶의 자취이며, 보람입니다.

애써 오신 회원님들과 수강생 여러분 그리고 강의를 맡아 오신 강사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귀한 글을 보내주신 분들에게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태백산에서 내리 품는 정기와 신령함이 모든 분들에게 골고루 나뉘어져서 건강한 삶이 되도록 기원합니다.

2016년 12월

김 연 식
태백시장

2016년 병신년 한해 폭넓은 지역의 문화활동을 총정리한 태백문화 제28집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평소 지역문화 계승 및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해운 문화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및 회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란 매우 광범위하여 단 한 문장으로의 정의는 어렵지만, 발빠르게 변화하는 현대사회 속에서 우리가 인간답고, 아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은 틀림없는 사실이며, 이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문화에 대한 자료를 집대성한 태백문화지는 그 자체만으로도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간 태백문화원에서는 다양한 문화활동지원사업 등을 통해 태백의 문화융성 및 발전을 도모하여 문화활동에 소외된 태백시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더불어 지역의 대표적인 문화행사라고 할 수 있는 낙동강발원제 및 태백산천제를 주관하는 등 태백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확립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 시민들로 하여금 다양한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향토문화, 문화유적 및 지명에 관한 내용 등을 담은 소중한 기록 자료라고 할 수 있는 태백문화 제28집 발간을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태백문화원의 무궁한 발전과 시민 여러분의 앞날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12월

심용보

태백시의회 의장

안녕하십니까? 태백시의회 의장 심용보입니다.

금년 한해 태백의 풍성한 문화 소식과 시민들의 생활상을 담은 『태백문화 제28집』 이 발간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우리 지역의 문화진흥과 시민 여러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앞장서 오고 계시는 김해운 태백문화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희망하고 꿈꾸는 태백의 미래를 위해 지금의 발자취는 소중한 문화자산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지나온 역사를 통하여 현재를 살아가고 미래를 그려보는 태백문화의 발간은 우리 지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리라 믿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지역의 독창적인 시민문화와 지역민의 생활상이 여러분들에게 잠시나마 삶의 여유와 웃음을 선사할 수 있도록 『태백문화』 가 향토 문화지로써 오랜 시간동안 편찬되길 기대하면서,

우리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태백문화원에서 다양하고도 유익한 프로그램들을 더욱 왕성하게 운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태백문화 제28집" 발간을 축하드리며, 태백문화원의 무궁한 발전과 시민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12월

태백문화 그 현장!

태백산천제
낙동강발원제

태백문화학교

건강기체조반/가요반/하모니카반/전통가락반/색소폰반/
중국어반/라인댄스반/토들러동작놀이반

문화사랑방

자수, 수예교실

문화학교 개강식/수료식/발표회

나눔의장

어르신문화프로그램
찾아가는 문화활동
2016강원문화대축전
유공자표창(도지사, 도의장)

문화유적지탐방

태백산천제

단군기원 4349년

太白山天祭

2016년 10월 3일. 개천절. 정오 / 태백산 천제단

제15회

낙동강발원제

2016년 7월 31일. 정오 / 황지(黃池)

바라춤 공연

제레봉행

낙동강발원수 채수제

2016년 5월 13일. 정오 / 황지(黃池)
주관 : 태백문화원/부산시 북구청

태백문화학교

Taebaek Culture School
건강기체조반

Taebaek Culture School
가 요 반

Taebaek Culture School

하모니카반

태백문화학교

Taebaek Culture School
전통가락반

Taebaek Culture School
색소폰반

Taebaek Culture School
중국어반

Taebaek Culture School
라인댄스반

태백문화학교

Taebaek Culture School
토들러동작놀이반

Taebaek Culture School

자수, 수예반

문화사랑방

문화학교 개강식/수료식/발표회

2016문화학교 & 발표회

2016문화학교 & 발표회

2016문화학교 & 발표회

2016문화학교 & 발표회

2016문화학교 & 발표회

2016문화학교 & 발표회

어르신문화프로그램

나눔의 장

장고춤 교실

문화봉사

견학

교류

발표회

2018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와 문화올림픽 준비를 위한

찾아가는 문화활동

2016. 5. 17 / 통리장터

2016 강원 어르신문화대축전
(2016.10.5 / 삼척문화예술회관)

2016 향토문화연구발표회(2016.8.26 철원군 철의삼각전적관)
-조선시대 천제에 대한 인식과 태백산천제 고찰-장한결

2016 강원문화대축전

2016. 11.31/강원랜드컨벤션센터

2016 강원문화대축전 도지사 표창/ 조미영 님

2016 강원문화대축전 도의장 표창/ 이상출 님

문화유적지탐방

2016. 5. 17 경기도 광릉

2016. 11. 4 대구 불로동 고분

태백문화

문화 논단

The Taebaek Culture Journal

태백산 천제 역사인식 제고와 발전에 대한 제안
김해운(태백문화원장)

저승사자를 살린 거무내미
배일환(전 태백시청 교육지원과장)

조선시대 천제에 대한 인식과 태백산 천제 고찰
장한결(태백문화원)

국립공원 3050, 자연과 함께! 미래와 함께
태백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신라 일성왕 천제 행차 재현을 통한 역사적 가치 재조명
태백시청 관광문화과

태백산 천제 역사인식 제고와 발전에 대한 제안

김 해 운(태백문화원장)

1. 서론 : 역사적 배경과 제안 목적

예로부터 태백시의 주산(主山)이자 대한민국의 영산(靈山) 태백산은 단순히 강원도와 경상도 접경지역의 오지가 아니라 민속신앙의 중심지요 성지(聖地)였다.

조선시대 성현의 허백당집 등 여러 문헌에 보면 봄가을로 제사지내러 오는 백성들이 앞사람의 발뒤꿈치를 밟고, 앞사람과 어깨를 부딪칠 정도라 하였고, 봉화에는 태백산에 기도하러 오는 백성들을 위한 역관을 운영하였다고 하였으니 태백이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오지는 아니었던 것이다.

민속신앙은 일제시대, 더 나아가 조선시대부터 미신이라 하여 푸대접을 받았다. 특히 일제는 민족말살정책의 일환으로 한국인의 정신적 중심인 역사와 전통문화를 미신이라 하여 천대하게 하였다. 하지만 일본 전역에 산재한 신사(神社)에 대해 조금만 알아도 일제의 이러한 시각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인지 잘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일본에는 약 7,8만개의 신사가 있고 그 안에서 이뤄지는 소위 신도신앙이라는 게 우리네 당집과 별반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산업화의 기적을 이뤘다. 그리고 명실공히 문화관광은 우리나라를 떠받치는 21세기 성장동력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 과거 미신이라 천대받던 민속문화의 재평가가 이뤄지고 있다.

강릉단오제는 2005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당당히 등재되어 해마다 성황리에 이뤄지고 있으며, 영월의 단종문화제는 단종이 태백산 산신이 되었다는 민간신앙을 빼놓고 논하기 어렵다. 과거 우리 태백산에서 행해졌던 하느님께 올리던 천제문화부터 산신신앙, 성황당 같은

무속에 대한 평가도 이제는 달라져야 할 것이다. 태백산에서 행해졌던, 한때 미신이라 천대받던 모든 것들을 이제는 문화관광자원이라는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때이다.

그리고 아주 작은 전설, 민담, 야사조차 개발하기에 따라 무궁한 가치를 지닌 원석으로 바라보아야 할 때이다.

가까운 삼척시는 2014년 수로부인헌화공원을 개장하였고 2016년 유료로 전환하였다.

삼척시는 삼국유사의 수로부인에 대한 두 가지 기사를 당당히 선점하여 문화관광자원으로 탈바꿈해 놓았다.

첫 번째 기사는 수로부인이 절벽에 핀 꽃을 보고 갖고 싶어 하자 소 몰던 노인이 꽃을 꺾어 바쳤다는 그 유명한 헌화가 이고, 또 하나는 강릉태수 부인인 수로부인이 동해 용에게 납치되었는데 동네사람들이 내 놓으라고 합창을 하자 용이 수로부인을 내 놓았다는 기사이다.

전설이라는 것은 역사와는 별개의 이야기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야기의 사실성 여부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 또한 그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장소 또한 명확하지 않다. 이러한 경우 누가 먼저 선점을 해서 가공하고 개발하는가가 중요할 뿐이다.

예를 들어 수로부인의 이야기를 가공하여 영화로도 만들 수 있고, 드라마, 애니메이션, 웹툰,

단군기원44349년 태백산천제

소설, 판타지로 다양하게 가공이 가능하다. 만약에 방송사에서 수로부인 드라마를 만든다고 치자, 삼척시에 세트장이 있고 태양의 후예처럼 경이적인 시청률을 기록했다면 어떨까? 우리는 정동진의 모래시계 열풍을 기억하고 있다.

태백의 경우 가장 큰 스토리의 원천은 태백산이고 태백산의 가장 큰 스토리를 하늘이 내려오신 곳, 하늘과 통하는 곳, 하늘과 만나는 곳,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천제단이 그 중심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자, 그렇다면 태백산 천제문화를 중심으로 수많은 태백의 스토리들을 활용하여 다른 곳에는 없는 태백만의 문화, 민족의 영산이라는 독특한 문화관광 자원을 어떻게 만들어 태백시의 활성화를 이룰 것인가?

경제도 살리고, 인구도 유입하고, 태백시를 대한민국 더 나아가 전 세계에 어떻게 알릴 것인가? 다함께 아이디어를 모아보자.

2. 본론 :

신라 일성왕의 태백산천제 친제 행렬 재현 중 왕이 천제 헌관에게 교지와 홀을 내리는 장면

1)역사의 가치 계승에 대한 현 실태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명절은 본래 설날, 단오, 추석, 동지였다. 일제시대와 해방이후 산업화 시대를 거치면서 설날과 추석은 살아남은 대신 단오와 동지는 축소되었다. 단오는 강릉시가 단오제라는 이름으로 계승하여 축제로 만들었고 동지는 시기적으로 비슷한 크리스마스에 그 자리를 내 주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5대 국경일은 3.1절, 제헌절, 광복절, 한글날, 그리고 개천절이다. 3.1절을 기념하는 지역축제 성격은 유관순의 고향인 천안시 병천면이 대표적이다. 태극기를 들고 흰옷을 입고 대한독립만세를 재현하는 행사는 아마도 병천면에서 가장 먼저 시작했다. 광복절에는 역시 천안시 독립기념관에서 대대적인 축하 행사를 한다. 한글날은 세종대왕릉이 있는 경기도 여주시와 세종대왕 동상이 있는 광화문 광장에서 축하행사가 펼쳐진다.

2)개천절의 문화적 가치

단군기원4349년 태백산천제

개천절은 BC 2333년 단군왕검이 고조선을 건국한 날로 세계적으로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역사 문화적 가치를 가진 기념일이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오랜 역사를 가진 나라는 많아도 건국한 시기가 명확한 기록을 가진 나라는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유구한 역사를 지닌 다른 나라에서 최초의 건국이라는 명분으로 기념일을 만들 수가 없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개천절이라는 건국 기념일을 1919년 상해 임시정부 수립 당시부터 중요한 국경일로 축하행사를 해 왔던 것이다.

두 번째 이유는 홍익인간이라는 명확한 건국이념이 있다는 것도 놀라운데 그 이념의 인류 보편성과 평화적 성격 때문이다. 수많은 인류학자들이 놀라워하는 대목으로 공통적으로 아시아의 극동에서 21세기 인류평화를 이룰 사상이 나오리라 주목하고 있는 근거이다.

3)개천절의 축제 가능성

그렇다면 개천절의 축제 가능성은 어떠한가? 사실 개천절은 가지고 있는 역사, 문화, 관광의 가치에 비해 푸대접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리는 다른 국경일은 모두 대통령이 참석하는데 정부공식 개천절 경축식에는 언제부터인가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개천절을 키운 것은 뜻있는 시민단체와 국민들이었다. 대표적으로 대종교와 여러 시민단체들은 서울시 사직공원에 있는 단군성전에서 해마다 개천절이면 축하행사를 해 왔고, 한때는 남북 공동으로 개천절 행사를 하기도 했다. 남북화합과 평화의 공통분모는 단군과 개천절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전국에 있는 수많은 단군성전에서는 개천절 또는 음력 개천절에 소박하게나마 하늘에 제사하는 기념행사를 잊지 않고 이어왔다. 그 대표적인 곳은 마니산 참성단이 있는 인천광역시 강화군과 강원도 태백시의 태백산 천제단이었다. 강화도는 태백산과 마찬가지로 단군과 관련된 수많은 이야기를 품고 있다. 단군왕검이 직접 하늘에 천제를 올렸다는 천제단인 참성단, 단군의 세 아들 부루, 부여, 부소가 쌓았다고 하는 삼랑성, 그리고 실제로 수많은 고인돌 유적과 고조선 시대 청동기 유물들이 출토되었기 때문이다. 고려시대만 하더라도 강화도는 제2의 수도라고 할 만큼 왕실과 밀접한 곳이었다. 몽골의 침입을 불심(佛心)으로 막아보자는 간절한 염원을 담아 팔만대장경이 만들어진 곳이고 삼별초가 제주도로 밀려나기 전 대몽골 결사항전을 펼치던 것이었다. 일제 강점기에는 민족말살정책의 일환으로 일제가 허문 참성단을 강화도의 기독교인들이 부흥회를 마치고 '우리의 조상은 단군이시니' 하면서 돌을 머리에 이고 올라 보수하였다는 기록이 전 국사편찬위원장 이만열 교수 논문에도 실릴 정도로 단군숭배사상이 강한 곳이었다.

때문에 일제 강점기 이후 단군을 모시던 여러 단체가 강화도로 들어갔고, 이들을 주축으로 개천절 전후 민간주도의 개천절 행사가 펼쳐졌다. 2000년대 이전만 하더라도 강화군이나 인천광역시는 방관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하고도 몇 년이 지나 시민단체의 개천절 행사를 유심히 지켜보던 강화군은 개천절 행사를 관 주도로 한다. 이와 함께 강화도의 관련 관광문화자원과 특산물을 연결시켰다. 강화군은 이러한 전략과 함께 남한인구의 절반

단군기원4349년 태백산천제

이 살고 있는 수도권을 옆에 둔 지리적 이점을 더하여 개천절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소위 개천절 마케팅을 성공적으로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산업화 시대는 의식주를 풍요롭게 하기 위한 시대였다. 그러나 1980년대 올림픽 전후하여 출생한 풍요로운 세대는 의식주에 대한 한(恨)이 없기 때문에 단지 의식주만을 위해 사는 삶을 더 이상 원하지 않는다. 힘들고 위험한 일 대신 개인적인 행복의 추구와 가족과 함께 누리는 삶을 추구하는 것을 어떻게 나무랄 수 있단 말인가? 이것은 자연스런 사회 발전의 단계이다. 인문학이 유행하는 것처럼 지역의 전통문화 발굴에 대한 각 지자체의 관심은 더욱 특별한 시, 군을 만들어 보려는 눈물 나는 노력인 동시에 지친 현대인의 허한 마음을 채워주고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필연적인 흐름인 것이다.

그 흐름을 잘 타고 성공한 곳이 강원도에서는 단오제의 강릉이요, 단종문화제의 영월군이라고 평가하고 싶다. 강릉시는 일찍부터 단오제를 연구 정리하여 2005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무산으로 등재를 성공하였다. 이는 그야말로 신의 한수였다. 몇 년이 흘러 2012년 정선군이 아리랑 등재에 성공하여 그 뒤를 잇고 있고, 영월군이 단종국장 등재를 추진하고 있다. 중요 포인트를 선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리더의 선택과 집중이 그 지역에 두고두고 얼마나 큰 유산을 남기는지 우리는 똑똑히 보고 있는 것이다.

영월군은 문화관광의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지명조차 김삿갓면, 한반도면으로 과감히 바꾸었고, 최근 2016년에는 주천면을 무릉도원면으로 바꾸는 과감한 선택을 하고 있다.

4)태백의 개천절에 대한 활용 실태

자, 그렇다면 부러워만 하고 있을 것인가? 우리 태백시에는 이러한 자원이 없는가? 아니다. 앞서 언급한대로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태백산에 백성들이 구름같이 몰려왔다고 기록하지 않았는가 말이다. 그럼 지금 이 시대에는 이것의 재현이 불가능할까? 조선시대보다 교통도 수십 배 편리해졌고, 숙식해결도 얼마든지 가능한 곳이 되었는데 말이다.

물론 1년 내내 몰려오면 제일 좋고, 궁극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야 하겠지만 선택과 집중이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는 가장 좋은 시기를 선택하고 집중해야 한다.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개천절 전후이다.

2000년대 넘어서 관 주도로 이루어진 '강화 마니산 개천대축제'에 비해 '태백산 천제'는 해방이후 봉화군 시민단체들이 해 오다가 1990년부터 태백시에서 후원하여 시작하였으니 얼마나 선구적인 일이었을까? 이제 태백산 천제를 중심에 놓고 머리를 맞대고 다시 한번 전략을 구상해

신라 일성왕의 태백산천제 친제행차 재현–사진:태백시 제공

신라 일성왕의 태백산천제 친제 행차 재현–사진:태백시 제공

야 할 때가 되었다. 이미 시에서 중요 추진과제로 삼고 있는 일성왕의 태백산 천제 행차 재연행사를 성대하게 치루는 등 매우 좋은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10월태백시에는 크게 3가지 행사가 이뤄진다.

태백시민들의 화합의 장인 태백제와 개천절 태백산 천제, 그리고 태백예술제이다. 이중에서 태백산 천제를 제외하고는 태백시민 대상이라는 한계를 넘지 못하고 있다.

이제 개천절을 중심으로 하나로 묶어 "태백산 개천대축제"로 만들자고 제안한다. 그리고 태백시민 중심에서 대한민국 국민, 그리고 앞으로는 세계적인 축제로 발전시키자고 제안한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이라는 말이 있듯이 가장 태백산다운 것이야말로 가장 큰 태백의 자산이 될 것이라 믿는다.

5)강화도 마니산의 개천대축제

강화군의 "강화 마니산 개천대축제"를 밴치마킹 차원에서 알아보자면 그 구성은 다음과 같다.

강화군에서 매년 열리는 개천대축제는 첫날인 10월 1일 오후 3시에는 마니산 상설공연장에서 오케스트라 공연과 재즈 공연을 한다. 2일 오전 11시부터는 마니산 상설공연장에서 강화 전국국악경연대회를 한다. 개천절인 10월 3일 오전 10시에는 마니산 참성단에서 강화군수가 제관으로 '개천대제'를 봉행하는데 2016년에는 3만 여명이 참석하였다고 한다.

2016년 기준 인천시 강화군은 10월 1일부터 3일까지 열리는 '단기 4349년 강화 마니산 개천대축제'를 시작으로 10월 7일부터 9일까지는 '강화도 새우젓 축제'를, 10월 8일부터 16일까

지는 '삼랑성 역사문화축제'를, 10월 15일부터 16일까지는 '강화고려인삼축제'를 진행하여 개천절 마케팅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다.

태백산 개천대축제는 크게 3단계 흐름으로 서로 연결이 되어 구성된다.

1단계는 사전행사로 10월 1~2일에 천제를 위해 일성왕이 태백시에 행차하고 시민들의 환영 축하행사가 펼쳐진다.

2단계는 본행사로 10월 3일 개천절에 태백산에 제관들과 문무백관, 화랑, 선녀, 국민들이 함께 태백산에 올라 국태민안과 평화통일을 기원하는 천제를 올리는 것이다.

3단계는 부대행사로 산에서 내려와서 온 국민들과 함께 씨름, 택견, 활쏘기, 윷놀이 같은 민속놀이를 하고, 공연을 함께 하며 국태민안을 즐기는 것이다. 하지만 10월 3일이 주말일 경우 대체휴일이 있긴 하지만 공휴일 관계가 매년 달라지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날짜를 바로 연달아 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럴 경우 강화군처럼 주말에 맞춰서 하면 될 것이다.

재현하는 축제에는 특히 스토리가 중요하다. 강릉단오제의 경우 음력 4월 15일에 대관령국사당에서 신을 모셔와 강릉여신당에서 합사하는 사전행사와 5월 5일 강릉여신당의 문을 열고 민속놀이를 하면서 함께 즐기는 본행사가 하나의 스토리로 이어져 있다.

태백산은 천제를 지내기 위한 왕의 행차와 태백산 천제, 그리고 천제 이후의 백성들과의 큰잔치라는 스토리로 잇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그리고 점차 세계적인 행사로 확장됨에 따라 일성왕 행차시 세계 여러 나라의 축하사절을 붙이면 된다. 예를 들어 일본왕의 태백산 천제 축하사절단, 몽골국의 축하사절단 이런 식으로 함께

일성왕 태백산천제 친제 행차 재현 중 일성왕과 태백산천제 삼헌관–사진:태백시 제공

행차를 하면 국제적인 행사로 발전 가능하다. 중요행사는 유튜브 등 인터넷방송으로 생중계하고 황지연못, 당골광장 등 관광지에서는 중계방송을 하여 시민과 관광객이 볼 수 있게 하면 좋을 것이다.

3. 결론 : 관광문화콘텐츠의 개발

1)태백산문화공원 조성

이와 함께 태백산의 문화관광콘텐츠를 담은 시설지구가 있으면 좋을 것이다. 삼척의 수로부인헌화공원을 밴치마킹하여 가칭 태백산역사문화공원으로 하고 태백산과 관련된 모든 역사, 전설의 인물을 스토리텔링하여 전시하고 문화해설사를 두어 관람객들에게 전달한다.

예시를 들면 다음과 같다. 용을 타고 있는 수로부인상처럼 단군상을 중앙에 배치하고 부소왕자, 일성왕 행차 모습, 김시습, 백마를 타고 오는 단종임금, 신돌석 의병장과 의병들, 태백산에서 독립기원제를 지내는 민족종교인들과 일제의 탄압, 허물어진 천제단을 다시 쌓는 백성들, 그리고 태백산에 천제를 지내러 오는 이름 모를 백성들의 형상 등 역사, 전설상 시대별로 인물상을 차례로 전시한다.

2)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아울러 국가적 차원에서 태백산 천제단과 천제문화를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추진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천제단이 있는 산은 강화도 마니산과 함께 태백산이 유일하다. 인류역사를 보면 하늘, 하느님, 태양 숭배를 하던 여러 민족들이 높은 곳에 제단을 쌓고 하늘에 제사를 올린 흔적이 여러 곳에 존재한다.

동양에서는 100여년 전까지 황제가 있던 자금성에 천제단을 만들고 황제가 직접 천제를 지냈고, 우리나라에서는 조선시대에는 천제를 지내지 못하다가 1897년(광무 원년) 고종황제가 환구단(원구단, 현 서울시청 앞 조선호텔)을 쌓고 하늘에 제사하며 대한제국을 선포한 역사가 있다.

이처럼 인류역사상 하늘에 제사하는 천제문화의 유적과 역사는 곳곳에 있으나 상고시대부터 현재까지 천제문화가 끊임없이 이어져 내려온 곳은 태백산 천제단의 천제문화가 유일하다고 할 수 있다.

지금도 매년 개천절마다 뜻있는 국민들과 함께 천제문화를 계승하고 있으니 인류가 보존해야 할 무형문화유산으로서 그 희소성과 역사성 등 보존가치가 다른 어떤 무형유산에 비하여 결코 약하지 않다.

시와 문화원뿐만 아니라 태백산국립공원, 환경부, 뜻있는 시민들과 국민, 학자 등 각계의 힘을 모아 태백산 천제단의 천제문화를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3)국가적 행사로의 지위 향상

마지막으로 태백산 천제를 국가적 행사로 치르게 해야 한다. 원래 천제는 황제가 지냈던 것처럼 대통령이나 최소한 국무총리가 지내야 마땅하다. 하지만 이제 국민이 주인인 민주주의 시대가 된 만큼 작게는 태백시, 크게는 우리나라 전체 차원에서 일성왕과 왕비 선발대회 등을 통해 국민 중에 제관을 선발하여 천제를 지내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또한 태백산이 국립공원으로 승격된 만큼 전국체전의 성화채화를 태백산에서 하는 방안도 고려해서 건의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전국체전은 강화도 마니산에서 강원도민체전은 태백산에서 성화채화를 해 왔다. 물론 강화도 마니산의 성화채화를 빼앗자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인천시와 태백시가 지역갈등이 생길 것이고 이것은 국민화합에 역행하는 일이 될 것이다. 다만 인천시에 양해를 구해서 강화도 마니산과 강원도 태백산 두 곳에서 성화채화를 해서 개최도시에서 합화하는 방안을 정중하게 제안해 보면 좋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천제단은 강화도 마니산과 강원도 태백산 두 곳인데 인체로 비유하면 마니산은 가슴이고 태백산은 등이다. 태백산이 국립공원이 되어 백두대간을 모두 연결하였듯이 백두대간의 중추를 지탱하는 태백산의 성화와 가슴에 해당하는 마니산의 성화가 개최지에서 만나 대한민국을 화합하게 하자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시와 문화원은 태백산국립공원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태백산 천제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적인 제천행사로 계승 발전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저승사자를 살린 거무내미

배 일 환 (전 태백시청 교육지원과장)

□ 거무내미 지명변천

깊은 산속 작은 마을이 전국 제일의 광산도시로 성장할 것임을 암시한 지명은 바로 '거무내미' 이다.

황지천의 한 지류인 거무내미는 예로부터 먹돌배기(금천항이 있는 자리) 하천변에 석탄층이 노출되어 비만 오면 계곡물이 검게 흐른 것에서 유래된 지명인데 일제 강점기 지적정리 때 순우리말 지명인 거무내미를 한자로 표기해 검천(黔川 검을 검, 내천)이라 했다가 동일한 한자이면서도 음과 뜻이 다른 금천(黔川 귀신이름 금, 내천)으로 바뀌어 오늘에 이르고 있는데 1916년에 발간된 삼척군지에 금천(黔川)이 등장한다.

거무내미로 인해 전국 제일의 광산도시가 된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먹돌배기에서 200m 안쪽에 승용차 5대 정도를 주차할 수 있는 '최초석탄발견지탑(最初石炭發見之塔)' 소공원에는 수갱과 갱차 미는 광부상과 탑 건립 유래가 새겨진 화강암 탑이 있는데 수갱은 그림 1과 같이 수직으로 파내려간 갱도에 로프식 승강기를 설치하여 인력과 석탄을 신속히 운반할 수 있게 하여 석탄생산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킨 장성광업소의 상징이기도 한 시설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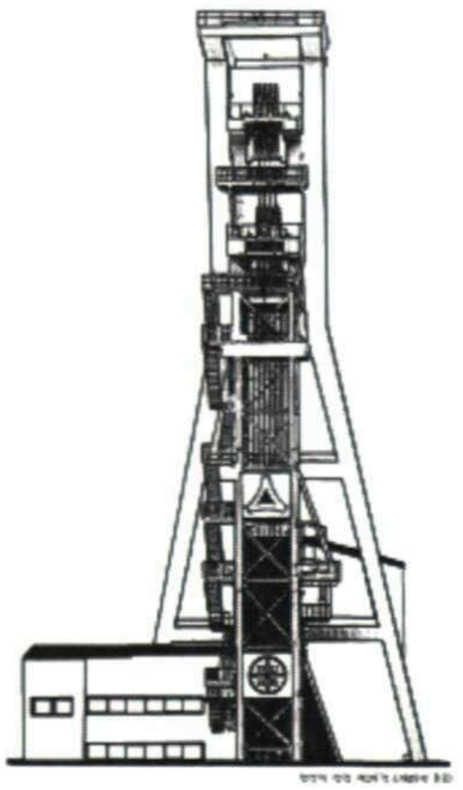


그림1 〉 장성광업소 제2수갱

그런데 검천이란 지명까지는 석탄산업과 연계된 지명이라 볼 수 있지만 지금 쓰고 있는 귀신 이름 금자를 쓴 금천이란 지명은 원래의 지명유래와도 맞지 않으며 갱내수 정화시설이 가동되면서부터는 하천에 검은 물도 흐르지 않게 되어 차츰 '거무내미'란 지명은 전설이 되어가고 있어 안타깝다.

어떻게 보면 검천이 금천으로 바뀐 것은 우리 말 발음구조상 별일이 아닐 수도 있는데 「역사와 어원으로 찾아가는 우리 땅 이야기(최재용 저)」를 보면 ' 금 ' 계열 땅이름은 원래 '신성한 마을',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신성한 땅'이란 뜻을 가지고 있으며 지역에 따라 '감', '검', '곰', '금', '가마' 등으로 불리는 사례가 많아 우리 말 '검'과 '금'은 글자는 달라도 같은 의미이나 검을 검(黔)이라는 한자는 공교롭게도 귀신이름 금(黔)자로도 쓰여 글자는 같지만 의미가 서로 달라 이제까지 우리를 헷갈리게 만들었는데 이 검과 금을 같은 의미의 글자로 본다면 금천 마을은 신성한 마을이 되어서 좋겠으나 거무내미라는 원래의 의미는 없어지고 만다.

따라서 필자는 귀신이름 금자로 바뀐 다른 이유를 찾기 위하여 거무내미 일대를 조사하던 차에 애경바위를 발견하게 되었고 근래 전국적으로 향토 자원에 대한 스토리텔링 개발이 한창이기 때문에 거무내미가 왜 금천으로 바뀌었는가에 대해 개인적인 견해를 소개하여 관내의 '문화유산 해설사'들에게 선사하고자 한다.

□ 태백사람도 잘 모르는 박월산과 문암산

금천의 태백미래학교에서 남남쪽으로 약 1km 떨어져 있는 곳에 문암산(960m)이 있고 이어진 능선 서쪽 600m 거리에 박월산(915m)이 있는데 그 주변으로 1,000m가 넘는 문수봉(1,517m), 달바위봉(1,094m), 조록바위봉(1,088m)등이 에워싸고 있음에도 봉에도 미치는 못하는 작은 능선에 산이란 이름을 부여한 것을 보면 결코 예사로운 일이 아니며 거기에는 분명 사연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장성 시내(협심동)에서 앞산(남쪽)을 바라보면 동쪽에 박월산, 서쪽에 문암산이 보이는데 거의 붙어 있는 산 같아도 각기 다른 이름을 갖게 된 것은 두 산의 성격이 물과 불과 같이 서로 확연히 다르기 때문이다.

박월산은 육산이라 숲이 무성하여 정상에 올라가도 조망이 좋지 않고 숲속에 범바위가 숨어있는데 반하여 악산인 문암산은 바위능선이 마치 용이 지상으로 내려오는 형상으로 멀리서도 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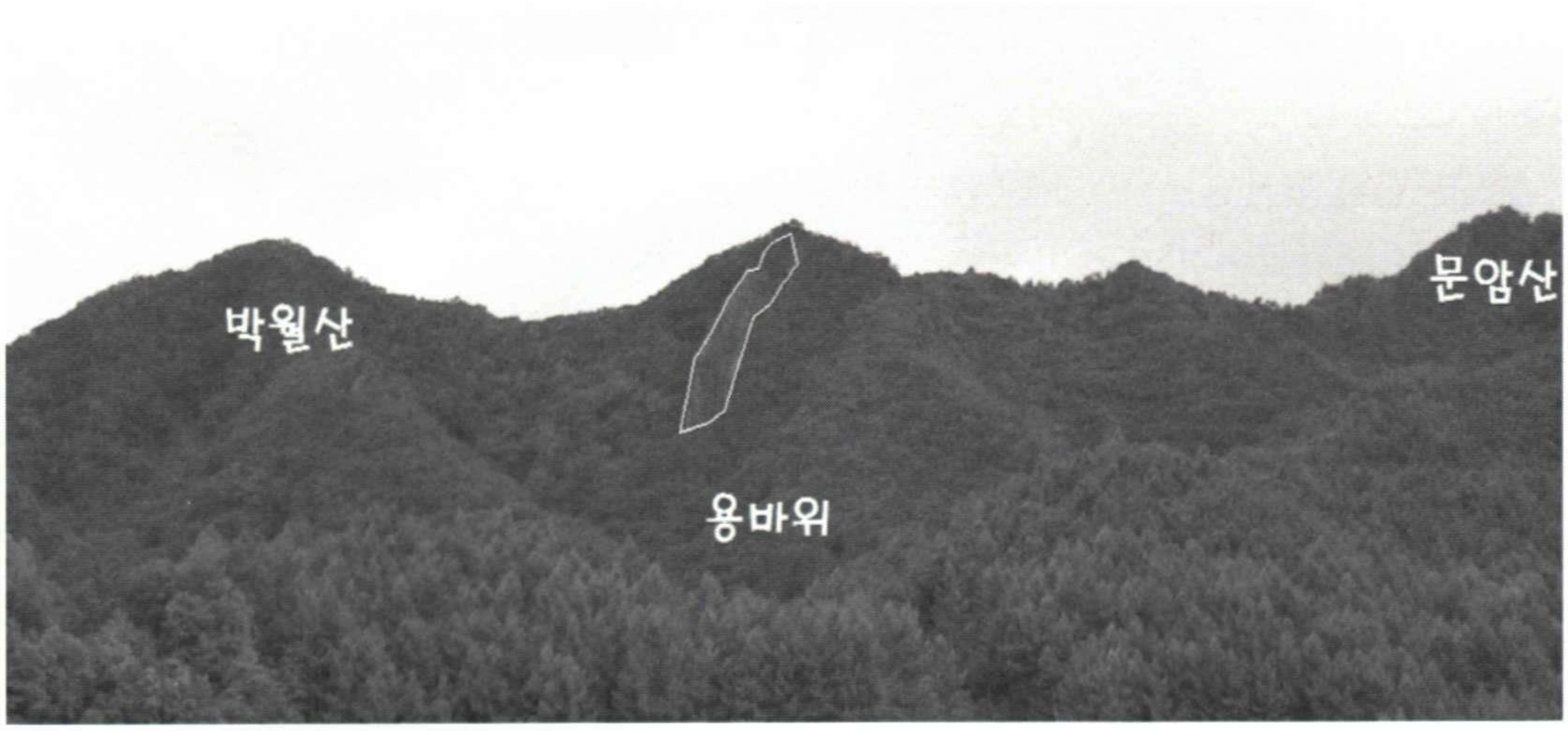


그림 2 〉 협심동에서 바라본 박월산과 문암산

그림 3〉 용암사 산신각 뒤 범바위

그림 4〉 박월산과 용바위 사이에 걸린 태양(여의주)

보일 수 있게 노출되어 있고 까마득한 낭떠러지가 위험하긴 하여도 능선을 타면 주변에 막힘이 없어 사방을 멀리 조망할 수 있다는 등의 차이점이 있다.

이 두 산을 묶어 용호농주암(龍虎弄珠岩)이라고도 하는데 태백의 지명유래(357쪽)에는 '용암사 산신각 뒤 동굴이 범의 아가리라하고 용암사 오른 쪽이 용바위이며 두 바위의 중간에 약 4m 높이의 둥그런 바위가 구슬같이 생겨 용과 범이 이 구슬을 차지하기 위해 서로 다투거나 희롱하는 형상이다.' 고 기록되어 있으나 용암사에서는 숲이 우거져 용바위나 구슬바위가 보이지 않았는데 박월산과 용바위 사이 능선이 움푹 들어간 곳에 막 넘어가는 태양이 마치 빛나는 여의주 같아 신기하게 느낀 적이 있었다.

박월산의 유래를 보면 '밝은 산을 숭배하는 우리민족을 배달민족이라 하여 한자를 차용,倍達(곱 배, 통달할 달)로 표기하나 한자만으로는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는데 '배' 는 '밝다', '달' 은 '땅 또는 산' 이란 의미로 '배달' ⇒ '밝은 달' ⇒ 박달⇒ 백산(白山)으로 변천되어 우리나라 곳곳에 백산이란 지명이 많으며 그 중에서도 으뜸을 백두산, 태백산, 함백산, 대박산(함백산의 옛 지명)이라 한다. 그러나 백산은 너무 많다보니 구별하기위하여 백산에 글자를 더하게 되었는데 예를 들면 황연동의 백병산(白屛山)은 병풍 병자를 추가하였고 박월산(朴月山)은 밝달⇒ 박달(백산)⇒ 박월산(朴月山 ; 산을 의미하는 달을 한자 달 월(月)자를 차용함으로 해서 뒤에 산자가 추가됨)으로 되었으니 박월산도 신령스러운 백산이라는 의미임에 틀림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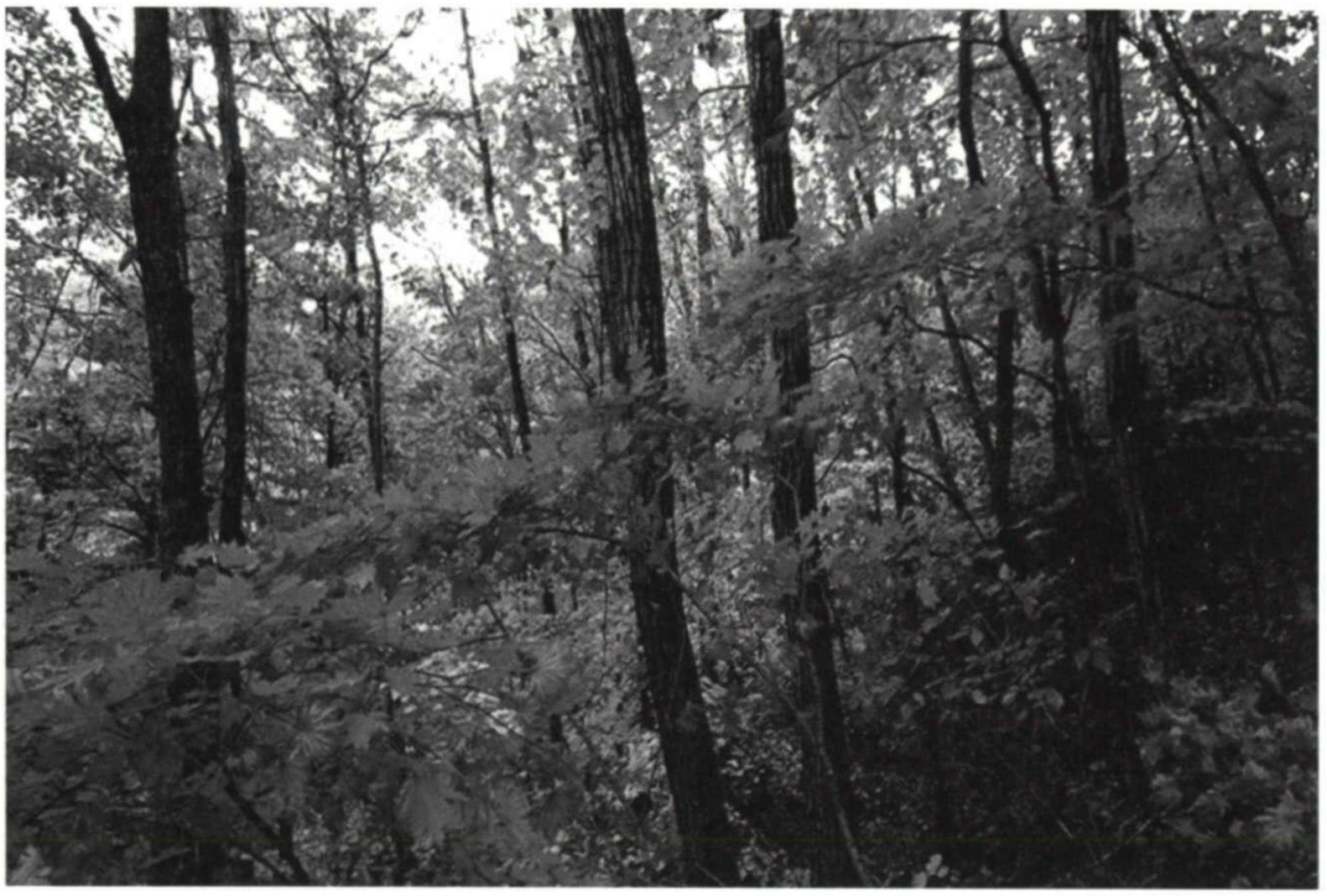


그림 〉 문암산의 아름다운 단풍

그림 〉문암산 꼬리진달래 (배일환 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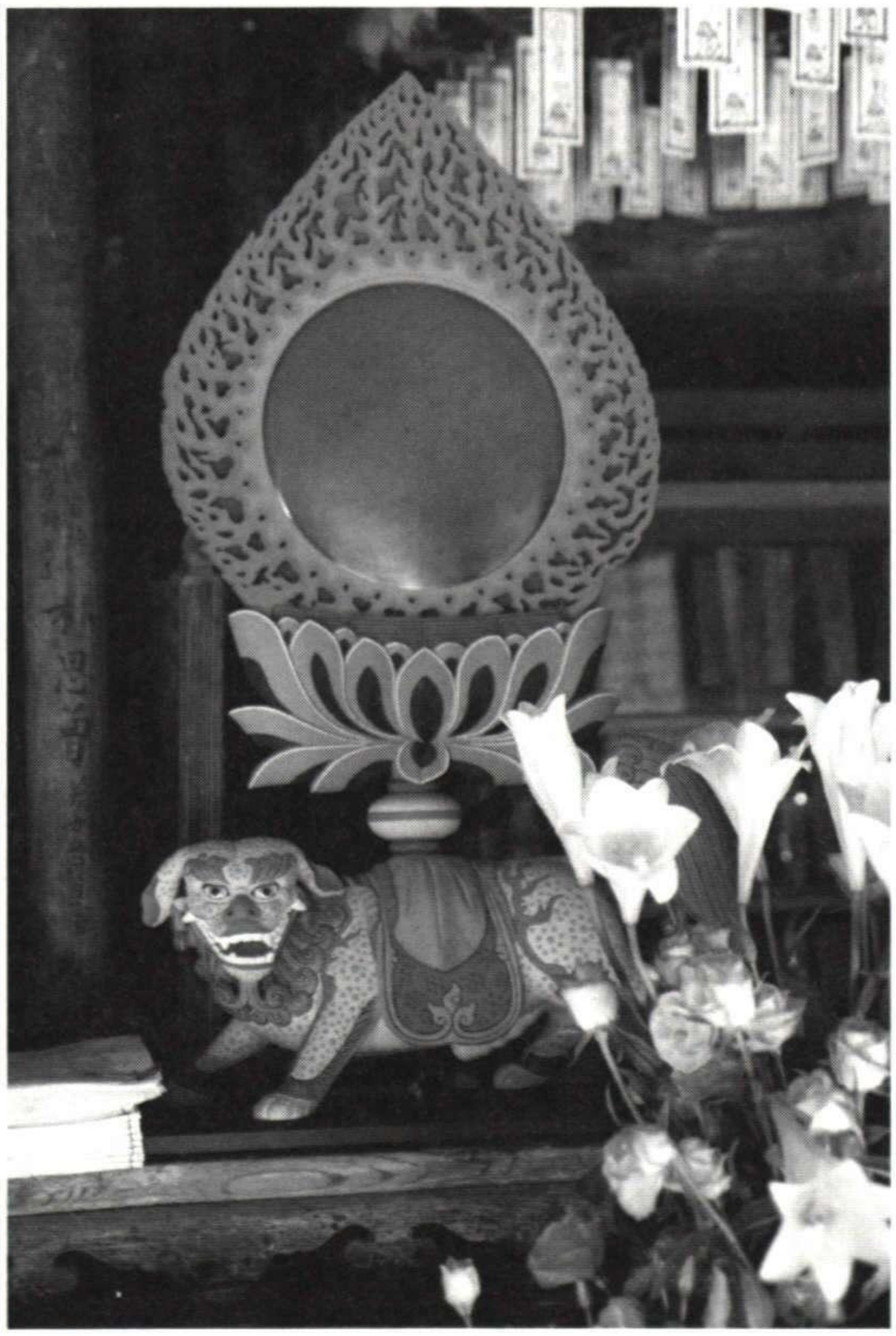


그림 〉강화도 전등사 업경대(문화재청)

한편 문암산(門岩山)은 문바위로 불러지다가 박월산보다 높은 관계로 독립된 산 이름을 갖게 된 것으로 여겨지는데 큰 바위가 마치 문같이 벌어진 문암산은 '용문산' 이라고도 했는데 '주사랑 감리교회' 에서 체육공원을 거쳐 문바위까지는 비교적 흙이 많아 가을철엔 등산로 주변이 온통 노랗고 붉은 단풍이 물들어 아름다운 풍경을 자아내지만 문바위부터는 암릉이 용바위까지 이어져 '용바위로 가는 문' 이라는 의미에서 용문산이라 한 것이다.

장성동 주민 자치 위원회에서는 "문암산은 용호농주암이 시작되는 석문이다.

전해오는 말에 의하면 이 문을 한 번씩 드나들 때마다 삼천갑자 동방삭처럼 수명이 3년씩 늘어난다고 하는데 장성이란 지명은 '장생불사(長生不死)' 에서 유래되었다." 라는 안내판을 설치해 놓음으로써 오지산행을 즐기는 불로거들이 이 좋은 의미를 전국으로 소개하고 있다.

문암산을 "태백의 금강"이라고도 하는데 그것은 산 능선이 90° 로 곧게 선 좁은 규암 층으로 이루어져있기 때문으로 규암은 주로 석영으로 이루어진 사암이 지각작용으로 변성이 되어 매우 단단해진 암석을 말하는 것으로 주변의 석회암들은 풍화되어 차츰 사라져 버리고 유독 규암층만이 남는 차별침식으로 인해 기암괴석이 절벽을 이룸과 동시에 전망을 좋게 하여 오지산행을 즐기는 이들이 많이 찾는 명소가 되었고 이런 자연 조건과 잘 어울리는 희귀종 식물인 꼬리진달래가 군락을 이루고 있어 초여름 만개한 꽃을 보면 마치 눈송이와도 같은 시원함을 느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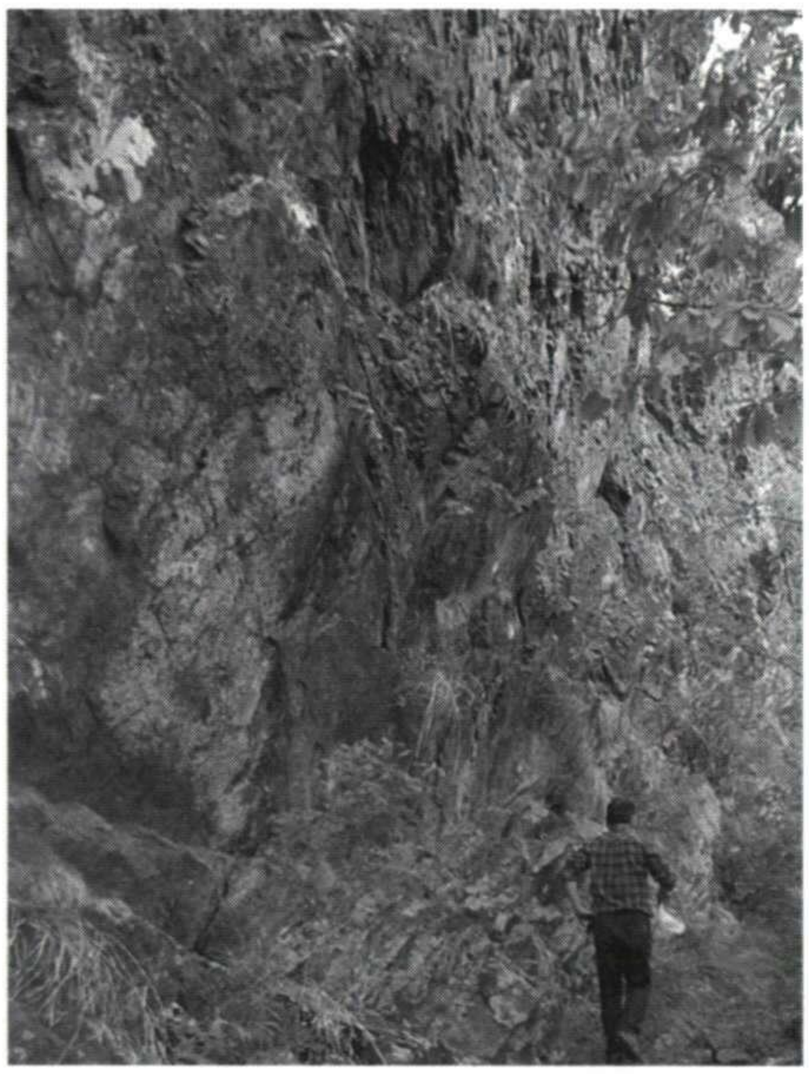


그림 〉용바위 가는 길의 애경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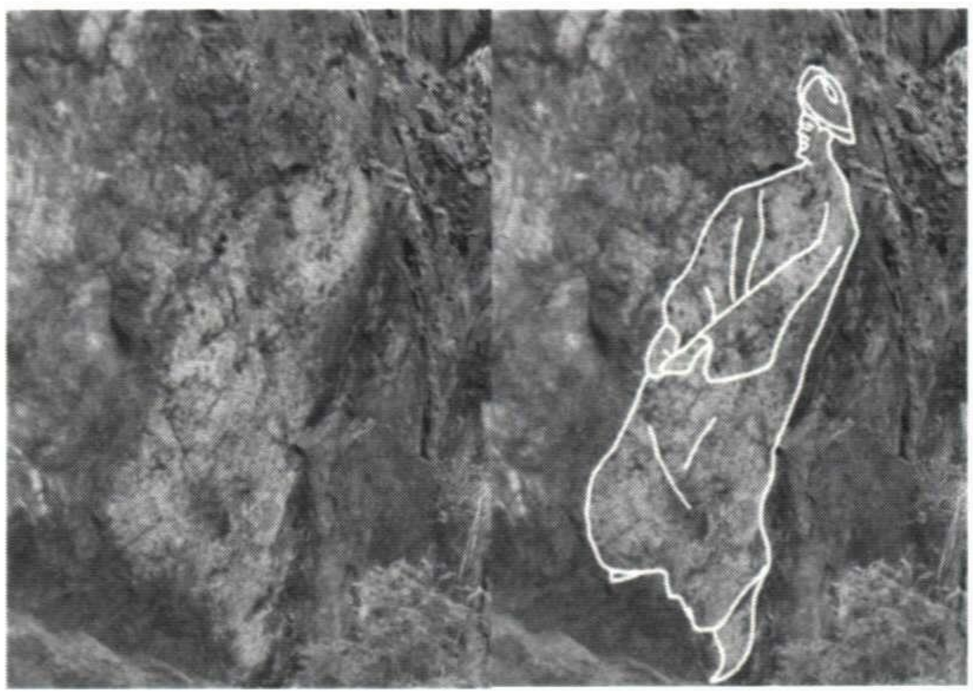


그림 9〉 애경바위의 터번 쓴 거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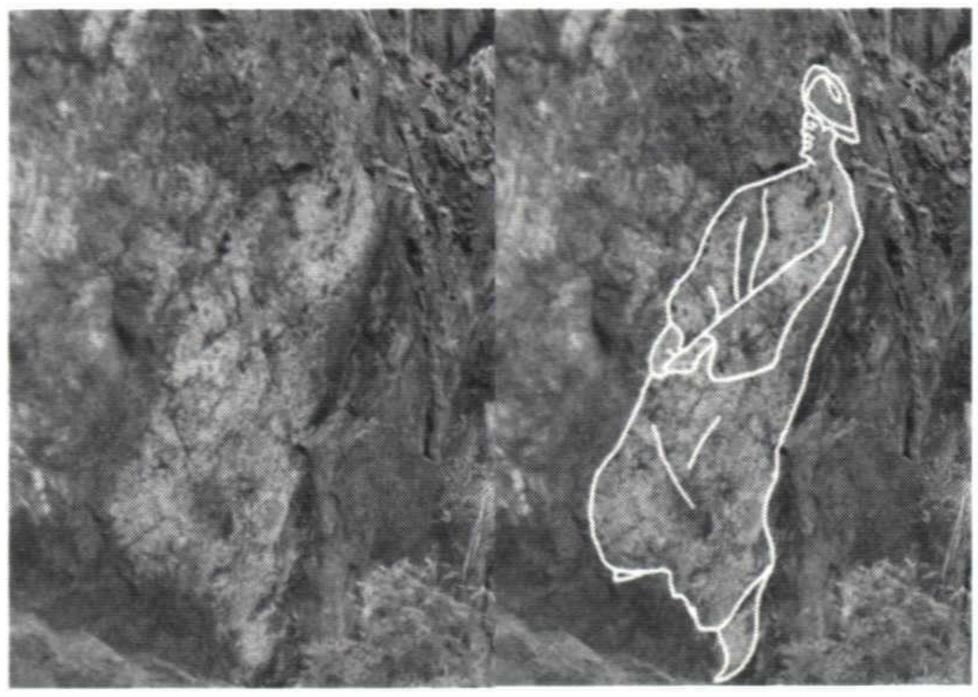


그림 10〉 애경바위의 앉아 있는 노인상

□ 마법의 거울 애경바위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진 세계명작동화 '백설공주'에서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여기는 왕비(공주의 계모)가 마술거울 앞에서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라고 묻으면 거울이 답하는 광경이 나오는데 어릴 적에 저런 신기한 마술거울만 있다면 남부러울 일이 없겠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 요즘 생각해보면 마술거울은 컴퓨터와 같아 예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갖고 싶어 했던 그 거울이 바로 인터넷과 연결된 컴퓨터란 상품으로 대중화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백설공주의 마법거울이 서양의 사례라면 동양에서는 불교의 업경이라는 마법거울이 있는데 죽은 이가 그 거울 앞에 서면 전생의 선행과 악행이 모두 나타난다고 하니 슈퍼컴퓨터의 데이터베이스와도 같은 기능을 이미 옛날 선인들도 구상했던 모양이다.

불교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일단 최후의 심판을 받기 위하여 명부로 가서 열 명의 왕에게 순차적으로 심판(보통사람은 7번째 왕까지만 심판을 받고 큰 악인은 모든 왕에게 심판을 받아 천국이나 지옥으로 가게 된다.)을 받게 되는데 그중 다섯 번째 왕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염라대왕(원래는 고대 인도의 신이었다고 한다)으로 그에게만 업경이 있어 염라대왕은 업경을 보면서 죽은 이를 심판했다고 한다.

이런 마법의 거울이 있다면 아예 거울에 모든 심판을 맡겨도 될 것 같은데 염라대왕은 마법거울에만 의존하지 않고 최종 판결을 했다고 하니 컴퓨터에 인공지능이 가미되는 등 그 성능이 날로 좋아져 언젠가는 인간이 컴퓨터에 지배당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이들이 많은데 명부의 사

례를 본다면 아무리 컴퓨터가 발달하여도 최종판단은 인간이 하도록 하면 문제없을 것으로 여겨진다.

아무튼 우리가 문상을 가서 고인에게 명복을 비는 것은 바로 이 명부에 가서 심판을 잘 받아 천당으로 가시라는 의미인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업경과 같은 마법거울인 애경바위가 용호농주암 어딘가에 있다하여 신기해했었는데 애경바위는 문바위와 용바위 사이에 있다고 하나 직접 본 사람이 없어 이를 찾기 위해 여러 차례 산행을 하게 되었다.

태백의 지명유래(358쪽)에는 "설무실골 제일 안쪽에 있는 거대한 바위절벽(문바위와 용바위 사이)의 면이 반질거려 마치 거울 같은데 저승으로 가는 사람이 이 바위(거울) 앞에 서면 그 사람의 선악을 알 수 있다고 하면서 거울처럼 생긴 바위라 하여 애경바위라 한다."고는 되어있는데 한자표기가 없어 아쉬웠다.

미루어 짐작하건데 애경(崖鏡:벼랑 애, 거울 경)으로 여겨지는데 불교에서 염라대왕이 망인의 죄를 비쳐 보는 거울인 업경(業鏡)을 본뜬 것으로 보아 아마도 불가에서 지어 낸 지명이 아닌가 생각된다.

한편 경기도 양주시에도 애경바위가 있어 문암산과 비교를 위해 그 유래를 찾아보았더니 "두 개의 바위가 서로 마주 보고 있어 큰 것은 수바위, 작은 것은 암바위라 하는데 옛날 어떤 장수가 올라가면서 밟은 발자국(혹은 앉은 자리)을 애경바위라 하게 되었으며 아기를 낳지 못하는 사람이 애경바위에 실을 묶어 놓고 기도하면 아기를 낳게 된다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온다고 하는데 이곳도 한자표기가 없어 애경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으나 전후 내용을 종합해보면 부부가 서로 아끼고 공경하면 애를 낳게 된다는 의미에서 애경(愛敬)이 아닐까란 생각이 드는데 장성의 문바위 역시 크고 작은 바위가 나란히 보고 있는 형상으로

만약 문바위가 곧 애경바위라고 한다면 이것은 무가에서 지어 낸 지명일 가능성이 크다.

애경바위를 찾지 못해 고민하던 중에 장성동 기관단체장들의 모임인 장수회에서 지역명소 탐방프로그램 운영 차 문암산에 올라갔을 때 용바위 가는 길 옆 절벽에서 터번을 쓴 거인상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 거인은 두 손을 다소곳이 모아 정중하게 "어서 오십시오."라고 맞이하는 형상으로 필자는 깜짝 놀라 자세히 관찰해 보았더니 녹색 지의류가 묘하게도 사람형상을 하고 있었는데 후일 다시 갔을 때에는 수염 난 노인이 앉아 "어서들 오시게" 하는 모양으로 바뀌어 있어 이것이 말로만 들었던 애경바위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 근거로는 우선 이끼가 사람형상으로 피어나 거울에 비친 것 같이 보였으며 또한 거인이 터

번을 썼다는 것도 염라대왕이 인도사람이라는 것을 암시하며 그래서 염라대왕만이 갖고 있다는 업경이 자연스럽게 연상하게 되었는데 이곳에 안내판을 설치하고 포토존으로 활용한다면 많은 등반인들에게 인기를 끌게 되지 않을까?

□ 탄천과 동방삭 전설

이제 다시 거무내미로 돌아가 보자.

거무내미와 유사한 지명이 경기도 성남의 '숯내' (탄천 炭川)와 울산의 숯못이 있는데 이 두 곳에는 내용은 약간 다르지만 재미난 전설이 전해오고 있어 한 가지만 소개해 본다.

염라국의 사무착오로 삼천갑자(18만년)를 산 동방삭(익살의 재사로 불리는 중국 전한의 문인)을 이번에도 잡아들이지 못하면 지옥으로 보내겠다는 염라대왕의 엄명을 받은 저승사자는 노련한 동방삭을 쉽게 잡지 못할 것 같아 고민하다가 동방삭이 호기심이 매우 많다는 것을 알아내어 성남의 한 하천에서 동방삭을 잡을 미끼로 숯을 잔뜩 쌓아 놓고 씻기 시작하였다.

한편 어떤 미친 사람이 냇가에서 끊임없이 숯을 씻어 하천을 더럽히고 있다는 소문을 전해들은 동방삭은 특유의 호기심이 발동하여 잽싸게 그곳으로 달려가 보니 과연 하천에서 뜬금없이 숯을 씻고 있는 한 사내가 있어 다가가서 말을 건넸다.

"이보시오! 어인 일로 그렇게 숯을 씻고 있소?"라고 묻자 "숯이 검기에 하얗게 만들려고 빨고 있답니다."라고 답하기에 기가 찬 동방삭이 "내가 삼천갑자를 살았어도 검은 숯을 씻어 하얗게 만든다는 사람은 당신이 처음이요. 하하하"하며 크게 웃자 저승사자가 쏜살같이 달려들며 "그렇게 똑똑한 놈이 내가 저승사자인 것은 어찌 몰랐더냐?"며 동방삭을 포박하여 염라국으로 끌고 갔다고 하며 그 뒤로 탄천이란 지명이 생겼다고 한다.

이런 탄천(炭川)도 한때는 검천(黔川)으로 부르다가 숯과 더 부합하는 한자를 써서 탄천으로 바뀌었듯이 거무내미의 검천이 금천으로 바뀐 것은 문암산의 애경 바위와 연계하면 어느 정도 합당한 의미를 찾을 수 있게 된다.

□ 저승사자를 살린 거무내미

동방삭(東方朔 ; BC 154 ~ BC 93)은 중국 전한 무제시대의 실존 인물로 양쯔강에 탄천과 유사한 전설이 전해오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성남의 탄천이나 울산의 숯못에 어찌 중국

의 동방삭 전설이 전해지게 된 것일까?

그것은 선비들이 중국 책을 많이 읽은 탓도 있겠으나 한편으로 스토리텔링에 뛰어난 소질이 있었기 때문이다.

중국전설을 타산지석 삼아 우리 어린이들에게 재미와 교훈을 준다면 누가 탓 할 것인가?

옛날 성남에 지금의 논산훈련소 같은 훈련기관이 있어 많은 병사들에게 먹일 밥을 짓다보면 자연히 하천이 검게 되어 중국의 전설이 도입된 것 같은데 우리도 애경바위와 연계하면 멋진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따라서 앞서 소개한 탄천의 전설은 다음과 같이 고쳐 해설사들이 활용하기를 기대한다.

저승사자를 살린 금천(거무내미)

염라국의 사무착오로 삼천갑자(18만년)를 산 동방삭(익살의 재사로 불리는 중국 전한의 문인)을 이번에는 어떤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잡아들이고 만약 잡지 못한다면 지옥으로 좌천 시킬 것이란 염라대왕의 엄명을 받은 저승사자는 노련한 동방삭을 체포하기 위하여 동료들과 아이디어 회의를 개최하였으나 뾰족한 수를 찾지 못하고 시간에 쫓기어 염라국을 떠나 애경바위를 향해 내려오던 중에 멀리 거무내미에 이상한 현상을 발견하게 되었다.

일정 지점부터 하천수가 검게 흐르는 것이 신기하게 여겨 가까이 다가 간 저승사자는 동방삭도 호기심이 많아 숯으로 하천을 검게 물들이면 소문을 듣고 스스로 찾아 올 것이라 판단하여 사람왕래가 많은 성남으로 향하였다.

모란장에서 숯장수를 찾은 저승사자는 "숯을 가져오는 대로 모조리 살터이니 어느 날 어느 곳으로 가져오라" 주문을 해놓고 약속한 그 날, 그 장소에서 숯을 사서 쉬지 않고 씻기 시작하였다.

한편 어떤 미친놈이 냇가에서 하염없이 숯을 씻어 하천물이 검게 흐른다는 소문을 전해 들은 동방삭은 특유의 호기심이 발동하여 잽싸게 그곳으로 달려가 보니 과연 하천에서 숯을 씻고 있는 한 사내가 있어 다가가서 말을 건넸다.

"이보시오! 어인 일로 그렇게 숯을 씻고 있소?"라고 묻자 "숯이 검기에 하얗게 만들려고 빨고 있답니다."라고 답하기에 기가 찬 동방삭이 "내가 삼천갑자를 살았어도 검은 숯을 씻어 하얗게 만든다는 사람은 당신이 처음이요. 하하하"하며 크게 웃자 저승사자가 쏜살같이 달려들며 "그렇게 똑똑한 놈이 내가 저승사자인 것은 어찌 몰랐더냐?"며 동방삭을 포박하여 염라국으로 끌고 가 그 공로로 수석 저승사자가 되었다고 한다.

이리하여 저승사자가 숯을 빨았던 하천은 탄천이라 부르게 되었고 염라국에서 쫓겨날 위기에 몰렸던 저승사자에게 묘수를 알려준 거무내미는 귀신이 다녀갔다는 의미에서 금천으로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

조선시대 천제에 대한 인식과 태백산 천제 고찰 (조선왕조실록을 중심으로)

장 한 결 (태백문화원 천제위원)

Ⅰ 연구 취지

삼국지 위지 동이전에도 나오듯이 우리민족은 대대로 명산에 제단을 쌓아 하늘에 제사하고 음주가무를 즐기는 천제(天祭)문화가 상고시대부터 있어왔다. 이는 우리민족이 하늘의 자손이라는 정체성을 지녔기 때문이었는데 이렇듯 우리민족이 천제의식을 행하고 기도하던 신성한 산을 태백산(太白山)이라 이름 붙였으니 태백산은 어떤 특정한 산을 지칭한 고유명사가 아니라 보통명사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삼국유사에 환웅이 내려온 태백산을 묘향산이나 백두산으로 보았던 것이다. 실제로 태백산이라는 지명은 중국, 일본에도 있었다. 본 연구에서 지칭하는 태백산은 한반도내 유일한 태백산인 현 강원도 태백시의 태백산이다. 강원도 태백시의 태백산이 의미 있는 이유 중 하나는 마침내 태백산이라는 이름을 지켜온 유일한 산이기 때문이다. 또한 그 이름에 걸맞게 천제단이 있어서 삼국사기에는 일성왕이 친히 행차하여 천제의식을 행했다고 기록되어 있고, 이후 구한말과 일제시대까지 천제의식을 행한 기록이 남아 있으며, 현재는 태백시와 태백문화원이 그 전통을 이어 매년 10월3일에 천제를 지내고 있으니 그 유구함과 문화적 가치는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이러한 천제문화가 늘 순조롭게 국가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행해졌던 것만은 아

니었으니 조선시대에는 국가에서 금하기도 했고 유학자에게는 삿된 귀신을 섬기는 음사(淫祀)로 탄압받았으며, 불승(佛僧)에 의해 훼손되기도 했던 것이다.

태백산과 천제단을 중심으로 한 천제문화는 이미 학자들에 의해 연구가 많이 진척 되어 있다. 다만 천제를 대하는 조선시대의 국가적 인식에 대해서는 연구가 조금 미흡하다고 판단하였다.

조선시대 태백산의 천제는 과연 어떤 분위기에서 이루어졌을까? 당시 지배계층은 천제를 감히 지낼 수 없는 것으로 인식했다. 중화 사대주의 유교국가를 표방한 제후국 신분의 왕조로서 당연한 인식이었으나, 문제는 고려시대까지 적어도 천 년 이상 천제를 지내왔다는 역사와 전통, 비록 제후국일지라도 해외(海外)에 있다는 예외성이었다. 천제문제에 있어 유교를 따르느냐, 역사 전통을 따르느냐는 조선시대 500년 내내 논쟁거리였다. 이러한 논란의 가운데 중앙정부와 멀리 떨어져있는 '오지(奧地)' 태백산의 천제는 유교 사대주의라는 국가 정책과는 별개로 오롯이 민중의 몫이었으니 그를 바라보는 중앙정부와 유생들의 시각이 곱지만은 않았던 것이다. 지배계층인 왕과 신하들은 '우리가 감히 천제를 지낼 수 있는가?' 라며 고민하고 있을 때 무지렁이라고 천대받던 백성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태백산을 찾아 천제를 지내고 하늘에 기도했으니 폄하와 탄압을 받지 않았다면 이상한 일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은 뒤집어 해석하면 반만년 역사 속에서 조선왕조 500년 동안 기득권 세력인 중앙정부와 유생들이 포기한 천제문화를 태백산에서 민중들이 이었다고 감히 평가할 수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조선왕조실록〉을 중심으로 조선시대 천제에 대한 인식과 태백산 천제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고 태백산 천제가 가진 의미를 고찰해보고자 하였다.

미흡하여 부족한 점은 필자의 탓으로 하고 다만 앞으로 태백산과 천제문화가 더욱 성대하게 계승 발전해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 가득하다.

II 연구 방법

태백산 천제에 대한 연구는 이미 많이 진행되어 태백문화원에서 발간한 여러 자료들과 2009년 강원도민일보에서 펴낸 『사료로 읽는 태백산과 천제』(김도현 저) 등 여러 연구 결과가 있었

다. 거기에 무엇을 더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과연 '태백산 천제가 어떠한 시대적 배경에서 이루어졌는가?' 라는 의문을 가지게 되었고 조선시대 가장 신뢰할만한 자료는 〈조선왕조실록〉이므로 찾아보니 과연 천제(天祭)에 관한 기사가 많았다. 본 연구는 〈조선왕조실록〉을 중심으로 하고, 여타 기록으로 보충하였다. 실록과 여러 자료들의 해석본은 본문에 실었고 원문은 글의 마지막에 실어 참조하게 하였다.

III 조선시대 천제에 대한 인식 (조선왕조실록을 중심으로)

1392년 태조 이성계는 고려를 무너뜨리고 조선을 건국하였다. 불교국가인 고려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유학자인 신진사대부와 함께 명나라에 대한 사대(事大)와 유교 국가를 표방하였다. 조선왕조실록에서 천제에 관한 기록을 볼 때 조선시대 기득권은 천제를 다음과 같이 인식하였음을 알 수 있다.

1) 우리나라는 단군 이래로 하늘에 제사를 지내왔고 삼국시대 이래로 천제를 지내왔으며, 고려시대에는 원구단(※주1)에서 국가적 차원의 천제를 행하였다고 인식하였다.

※주1 원구단(圓丘壇)(=환구단) : 하늘에 제사를 지내던 제단(祭壇). 원단(圓壇)은 조선 3대 태종(太宗) 때, 원구단(圓丘壇)을 없애고 새로 설치한 것임.

2) 우리민족이 역사적으로 천제를 지낸 장소는 원구단, 마니산(摩利山) 참성단, 구월산, 태백산 등이었다고 인식하였다.

3) 천제는 단군~삼국시대 이래로 행해지던 한민족의 고유한 제례의식이라는 인식과 초제(※주2)로 대표되는 도교적 성격을 가진 의식이라는 두 가지 인식이 공존하였다. (이 두 가지 형식은 융합하기도 하는데 강화도 마니산 참성단의 경우 단군이 천제하던 곳인데 조선시대에는 관리를 보내 초제를 지냈다.)

※주2 초제(醮祭) : 삼청성신(三淸星辰)에게 지내는 제사를 말한다. 옥황상제(玉皇上帝)、태상

로군(太上老君)、보화천존(普化天尊)과 재동제군(梓童諸君)、칠성제숙(七星諸宿)、사해용왕(四海龍王)、명부시왕(冥府十王)、수부제신(水府諸神) 등 도교(道敎)의 모든 신을 구상화(具象化)하여 삼청전(三淸殿)과 태일전(太一殿)에 모시고 소격서(昭格署)에서 그 제사를 주관하였다. 일월성신(日月星辰) 별자리에 지내는 제사.

4) 천제의 형식은 명산대천의 천제와 고려시대 이후 원구단(환구단)에서 왕이 직접 행하던 천제, 관리(또는 무당)가 국가의 안녕을 위해 도교식으로 지내는 소격서의 초제가 있었다. 실록에는 이 세 가지 개념이 혼재하나 모두 천제를 지칭하는 것임에는 틀림없었으며, 이 세 가지 형식 중에서도 가장 뜨거운 논점은 원구단에서 왕이 직접 행하는 천제였다.

5) 조선건국의 주체인 신진사대부 유학자들은 대부분 예기(禮記)의 "천자는 천지에 제사하고 제후는 경내 산천에 제사한다."(王制篇 天子祭天地, 天子祭天下名山大川:諸侯祭名山大川之在其地者.)는 구절과 공자가 제후국인 노나라가 천제지낸 것을 꾸짖은 것을 근거로 제후국의 지위인 조선이 천제를 지내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6)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시대 여러 왕들과 몇몇 신하(유생)들은 조선이 자주적으로 천제를 지내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그 근거는 첫째, 천제는 우리민족의 전통 제례의식으로 기자이전에 이미 단군이 천제를 지냈고, 전 왕조인 고려시대에도 지냈는데 조선에서 중지할 수 없다는 것. 둘째, 원칙적으로 제후국이어서 천제를 못 지낸다고 하지만 제후국 중에서도 해외(海外)에 있고, 고황제(명태조)가 스스로 알아서 하라고 했기 때문에 조선은 예외적인 제후국이라는 자주적 인식 때문이었다. 이러한 인식은 사대주의 풍토 속에서 분명 주류 입장은 아니었지만 구한말에 와서는 주류가 되었다.

7) 몇몇 왕들은 천제를 계승하려고 노력하였고 이러한 입장은 신하들과 마찰을 빚었다. 왕권이 약한 왕들은 신하들의 주장을 이기지 못하였으나 강한 왕들은 신하들의 반대에도 뜻을 관철시켰다.

8) 천제에 비교적 긍정적인 왕은 건국 초기 태종을 비롯해 세조, 중종, 광해군, 정조이며, 신하의 만류를 이기지 못한 왕은 인조이다. 직접 원구단에 나아가 천제를 행한 왕은 세조와 고종이다.

9) 조선시대 국가가 관장한 천제는 원단(남단), 마리산(참성단) 초제로 왕이 직접 거행한 경우

는 세조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었고 관리를 파견해 지내는 형태만 있었으며, 소격서에서 일월성신에게 도교적 성격으로 행해진 천제는 임진왜란으로 소격서가 전소되기 전까지 이어졌다.

10) 조선시대 지배계층은 대표적으로 태백산에서 행해진 민간차원의 천제를 인식하고 있었으나 삿된 귀신을 섬기는 음사(淫祀)라고 폄하하였으며, 여러 폐단을 이유로 금지하기도 했으나 완전히 근절시키지는 못하였다.

11) 당시 태백산의 행정구역인 삼척군이나 봉화군에서는 관에서 천제를 통해 이익을 얻기도 했으며(세금-베, 제물-소) 천제에 참석하는 관리와 백성을 위해 역관도 운영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강경하게 천제를 금지한 영남(경상)관찰사 김치(金緻 1577~1625,선조~인조)같은 인물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천제가 관의 묵인 하에 자유롭게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12) '천자는 천지에 제사하고 제후는 산천에 제사할 수 있다' 는 보이지 않는 정신적 굴레를 세조 이외에는 조선왕조 내내 벗어나지 못하였다가 임진왜란 이후 명나라가 쇠락하는 시기(광해군), 조선후기 중흥기를 열었다고 평가되는 정조시대에 벗어나려고 노력한 흔적이 보이며, 고종이 황제국인 대한제국을 선포하면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울러 태백산(기도, 천제)에 대한 국가적 인식도 조선말기 비로소 음사(淫祀)에서 국가의 안녕을 기원하는 제의로 위상이 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가. 조선 전기 (건국~15세기, 태조~성종)

●실록자료 1) 원구단의 제사는 폐지하지 않고 이름만 원단으로 고치다

1394년 태조실록 6권, 태조 3년 8월 21일

예조에서 아뢰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삼국시대 이래로 원구단(圜丘壇)에서 하늘에 제사를 올리고 기곡(祈穀)과 기우(祈雨)를 행한 지 이미 오래 되었으니, 경솔하게 폐할 수 없습니다. 사전(祀典)에 기록하여 옛날 제도를 회복하되 이름을 원단(圜壇)이라 고쳐 부르기 바랍니다."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변계량의 상서문 (태종실록)

●실록자료 2) 경연에서 기양에 대해 경연관과 논하다

1400년 정종실록 6권, 정종 2년 12월 18일

"소격전(昭格殿)에서 별에 제사하는 일은 영이(靈異)한 것이 여러 번 나타났으니, 소홀히 할 수 없다. 그 나머지 음사(淫祀)는 없애는 것이 어떠한가?"

하니, 경연관들이 대답하기를,

"천자(天子)·제후(諸侯)·사(士)·서인(庶人)이 각각 제사하는 신(神)이 있으니, 천자인 연후에 천지(天地)에 제사하고, 제후인 연후에 산천(山川)에 제사하는 것인데, 지금 우리나라 풍속에 비록 서인(庶人)이라도 또한 모두 산천에 제사하니, 예로서는 마땅히 금하여야 합니다."

●실록자료 3) 하늘에 제사를 지내야 한다는 변계량의 상서문

1416년 태종실록 31권, 태종 16년 6월 1일

경승부윤(敬承府尹) 변계량(卞季良)이 상서(上書)하였다. 글은 이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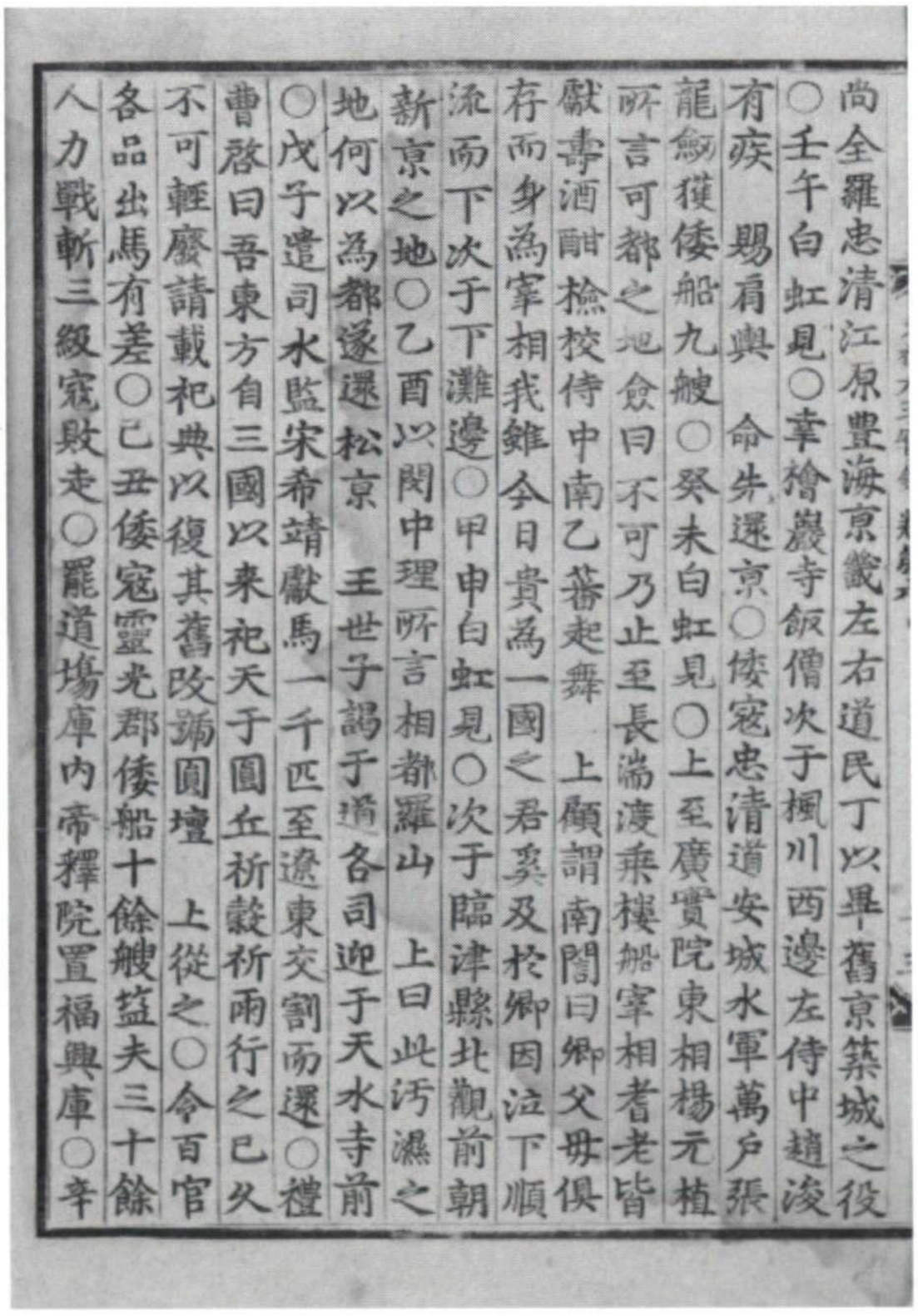
"이제 비를 빌면서 하늘에 제사지내지 아니하는데, 신은 그것이 옳은 것인지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중략)

우리 동방은 단군(檀君)이 시조인데, 대개 하늘에서 내려왔고 천자가 분봉(分封)한 나라가 아닙니다. 단군이 내려온 것이 당요(唐堯)의 무진년(戊辰年)에 있었으니, 오늘에 이르기까지 3천여 년이 됩니다. 하늘에 제사하는 예가 어느 시대에 시작하였는지를 알지 못하겠습니다만, 그러나 또한 1천여 년이 되도록 이를 혹은 고친 적이 아직 없습니다. 태조 강헌 대왕(太祖康憲大王)이 또한 이를 따라 더욱 공근(恭謹)하였으니, 신은 하늘에 제사하는 예를 폐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략)

신은 말하기를, '천자(天子)는 천지(天地)에 제사하고, 제후(諸侯)는 산천(山川)에 제사하는 것은 이것은 예(禮)의 대체(大體)가 그러한 것이다. 그러나 제후로서 하늘에 제사한 경우도 또한 있었습니다. (중략)

이리하여 변계량(卞季良)에게 명하여 제천문(祭天文)을 짓게 하고, 자책(自責)하는 뜻을 가지고 매우 자세하게 유시(諭示)하였다. 변계량이 지어서 바친 글이 뜻에 맞으니, 구마(廐馬) 1필을 내려 주었다. 변계량이 부처(佛)에 혹(惑)하고 신(神)에 아첨하며, 하늘에 배례(拜禮)하고 별에 배례하여 하지 못하는 일이 없고, 심지어 동국(東國)에서 하늘에 제사하자는 설(說)을 힘써 주장하니, 분수를 범하고 예를 잃음을 알지 못함이 아닌데(예를 잃음을 알면서도), 한갓 억지의 글로써 올바른 이치를 빼앗으려 한 것뿐이다.

조선 3대 임금 태종(이방원)시대로 넘어오면서 새로운 국가의 기틀을 다지는 시기 천제가 논쟁이 되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예조에서는 우리나라가 단군~삼국시대~고려시대까지 대대로 하늘에 제사를 지냈다는 이유로 고려시대까지 존재했던 원구단을 원단으로 이름만 고쳐 그



변계량의 상서문 (태종실록)

대로 유지하여 천제 전통을 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로써 조선 건국초기에는 천제에 대한 전통을 계승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변계량이 천제의 당위성을 상소하고 임금이 자책하며 제천문(祭天文)을 짓게 하고 변계량을 포상하였는데도 이를 기록한 사관은 변계량의 (중국과 유교에 대한)무례함과 조선에서 천제 지냄이 이치에 맞지 않음을 꾸짖고 있는 것으로 보아 유학자들의 반대여론도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실록자료 4) 예조 판서 변계량이 제천지례를 행하도록 청하다

1417년 태종실록 34권, 태종 17년 12월 4일

예조 판서(禮曹判書) 변계량(卞季良)이 하늘에 제사하는 예[祭天之禮]를 행하도록 청하였다. 변계량이 아뢰기를,"신이 항상 하늘에 제사하는 예를 행하도록 원하여 이미 지나간 해에 두 번씩이나 계달하였으나, 유윤을 입지 못하였습니다. 청컨대, 이 예를 행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내가 일찍이 들으니, '천자(天子)는 천지(天地)에 제사하고 제후(諸侯)는 경내(境內)산천(山川)에 제사한다.' 하니, 나는 다만 이 예만 알기 때문에 경내 산천에 제사하고 하늘에 제사하는 예는 감히 바라지 못한 것이다.(하략)"하였다. 변계량이, "우리나라가 멀리 해외(海外)에 있어서 중국의 제후와 같지 않기 때문에 고황제(高皇帝=명태조明太祖)가 조서하기를, '천조지설(天造地設)하였으니 스스로 성교(聲敎)를 하라.' 하였고, 또 전조의 왕씨(王氏)가 이미 이 예를 행하였는데, 다만 성상께서 사대(事大)하는 정성이 예에 어긋남이 없기 때문에(사대를 정성으로 하기 때문에) 행하고자 하지 않는 것입니다. (중략)" 임금이 말하였다." (중략) 큰 가뭄이 있으면, 부득이하여 기우제를 지내는 때가 있으니, 마땅히 대신과 더불어 여러 사전(史傳)에 상고하여 참작하여 아뢰라."

1년 뒤 변계량이 예조판서가 되어 다시 한 번 천제 지낼 것을 상소하자 왕은 천제는 천자(天子,황제)가 지내는 것이고 제후(조선)는 경내 산천에만 제사를 지내야 한다며 한발 물러선다. 조선 스스로 제후국이므로 천제를 지낼 수 없다는 인식이 점차 자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후 천제를 지내는 문제가 논쟁이 될 것을 예고하고 있다.

●실록자료 5) 좌의정 박은을 보내어 원단에 제사지내다

1418년 태종실록 36권, 태종 18년 7월 1일

좌의정(左議政) 박은(朴訔)을 보내어 원단(圓壇)에 제사지냈다. 원단은 제천(祭天)하는 곳인데, 가물면 나아가서 기우(祈雨)한다.

원단에 신하를 보내 기우제를 지냈다는 기록이다. 원단은 원래 왕이 직접 천제를 행하는 곳인데 왕이 직접 하지 못하고 신하를 보내 지냈다는 것은 제의의 격이 낮아졌음을 의미한다. 이후 정조 시대에 천제를 지내는 신하의 품계를 놓고 논쟁을 벌이는데 신하의 품계가 높을수록 제의의 격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실록자료 6) 세종실록 148권, 지리지 경기 부평 도호부 강화 도호부 (현 강화도)

강화 도호부(江華都護府)

진산(鎭山)은 고려 마리산(摩利山)이다. 【부(府) 남쪽에 있다. 꼭대기에 참성단(塹星壇)이 있는데, 돌로 쌓아서 단의 높이가 10척이며, 위로는 모지고 아래는 궁글며, 단 위의 사면(四面)이 각기 6척 6촌이고, 아래의 너비가 각기 15척이다. 세상에 전하기를, "조선 단군(檀君)이 하늘에 제사지내던 석단(石壇)이라." 한다. 산기슭에 재궁(齋宮)이 있는데, 예로부터 매년 봄 · 가을에 대언(代言)을 보내어 초제(醮祭)를 지내었다.

강화도 마니산 참성단에 대한 기록이며, 초제(도교 의례, 별에 제사함)를 지냈음을 알 수 있다. 신하를 파견해서 지냈다는 기록이다.

특이한 것은 세조 때는 아주 이질적이게도 환구단(=원구단) 기사가 11건이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왕이 직접 환구단에서 천제를 지냈다는 기사가 여러 번 보인다는 점이다. 조선의 역대 왕들 중 원구단(환구단)에서 친히 천제 지냈다고 기록된 왕은 세조와 고종이 유일하다. 세조는 서울 한가운데 원각사를 창건하기도 한 불교신자였는데 이러한 성향과 무관하지 않은 것일까?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세조가 직접 원구단에 나아가 천제를 지냈다는 기사 몇 개를 소개한다.

●실록자료 7) 면복을 갖추고 환구단에 제사를 올리다

1457년 세조실록 6권, 세조 3년 1월 15일

임금이 면복(冕服)을 갖추고 환구단(圜丘壇)에 올라 제사를 지내기를 의식대로 하였다.

●실록자료 8) 환구단에 제사지내다.

1458년 세조실록 11권, 세조 4년 1월 15일

친히 환구단(圜丘檀)에 제사지냈다.

나. 조선 중기 (16~17세기, 연산군~현종)

16세기(중종)이후에는 조선의 기틀이 다져지고 오랫동안의 태평성대로 사림이 중앙권력을 잡는 시기인데 점차 천제에 대한 유학자들의 반대여론이 강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조광조를 필두로 정권을 잡은 사림(士林)세력은 유교이상에 맞게 조선을 혁신하고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천제가 유교의 예(禮)에 어긋난다고 인식하였다. 대표적으로 '격하된 천제'를 포함한 국가 제의를 관장하던 소격서를 혁파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중종 또한 순순히 윤허하지 않고 맞서는 기사로 보아 소격서(천제)를 둘러싼 논쟁은 왕과 신하들 간에 권력다툼이면서 동시에 천제란 유교적 가르침과 별개로 왕권과 국가의 자존심으로 인식했다는 의미부여가 가능하다. 이러한 해석이 가능한 또 다른 이유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 유교적 지배이념이 도전받고 지배계층에 대한 백성들의 불신이 커졌을 때 왕권과 국가를 공고히 하는 수단으로 원구단을 재건하고 친히 천제를 지내려는 광해군의 시도가 엿보이기 때문이다. 반정으로 광해군의 뒤를 이은 인조 또한 임진왜란 당시 불타버린 소격서를 재건하고자 하였다. 광해군의 원구단과 인조의 소격서는 모두 신하의 반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지만 이러한 기록에서 조선시대 몇몇 왕들은 유교적 이념과는 별개로 원구단, 소격서, 마니산의 천제제의를 중요시 했고 왕권의 상징처럼 인식했다는 의미부여가 가능하다. 이것은 조선말기 원구단과 친제(親祭)를 복원시킨 고종황제의 예로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실록자료 9) 대사간 김세필 등이 신용개의 추고와 소격서의 혁파를 아뢰니 불허하다

1511년 중종실록 14권, 중종 6년 6월 5일

조강에 나아갔다. 대사간 김세필과 지평 이성언이, 신용개를 추고하여 시비 밝히기를 청하고, 또 소격서 혁파할 것을 청했으나, 다 윤허하지 않았다. (중략) 또 천자라야 천지에 제사하며 제후는 다만 산천(山川)에 제사하는 법인데, 우리 나라가 상제(上帝)에 제사함은 예에 맞지 않습니다. (중략) 답하지 않았다.

●실록자료 10) 김응기 등이 기신재 · 내수사 장리의 혁파를 건의하다

1516년 중종실록 24권, 중종 11년 2월 26일

조강에 나아갔다. (중략) 영사 김응기는 아뢰기를, "국가에 크게 관계되는 일은 없는 것 같으나 소격서(昭格署)의 마니산(摩尼山) 제사 같은 것은 다 하늘에 제사지내는 것이니, 이는 심한 참례(僭禮)입니다." (중략) 좌우(左右)도 모두 힘써 간쟁(諫爭)하였으나 또한 윤허하지 않았다.

당시 유학자들은 천제는 우리나라에서는 감히 행할 수 없는 것으로 인식하였음을 재차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다.

●실록자료 11) 시독관 이황이 불교를 멀리하고 왕도를 행할 것을 청하다

1552년 명종실록 13권, 명종 7년 5월 8일

상이 석강에 나아갔다. 시독관(侍讀官) 이황(李滉)이 아뢰기를, "(중략) 제천(祭天) · 교사(郊祀)(※주3)는 우리나라에서 할 수 없는 것이기는 하나, 그 예(禮)는 몰라서는 안 되기 때문에 감히 써서 아룁니다."하였다.

※주3 郊祀(교사) : =교제(郊祭). 하늘과 땅에 지내는 제사. 옛날 천자(天子)가 동지 때에는 남쪽 교외에 나가 하늘에 제사 지내고, 하지 때에는 북쪽 교외에 나가 땅에 제사를 지냄. 천자(天子)가 수도 100리 밖에서 행하던 제천의식(祭天儀式).

임진왜란 이후 명나라가 쇠퇴의 길로 들어서고 후금(청)이 일어나는 17세기에 이르러 선조의 뒤를 이은 광해군은 국가재건의 일환으로 천제를 복원하고자 하는 의지를 비친다. 원구단(남단)을 재건하려하고 친히 천제를 봉행하고자 하나 신하들의 반대에 부딪쳐 이루지 못하였다. 광해군은 폭군으로도 평가 받지만 임진왜란 당시 참상을 목격하고 직접 참전한 경험으로 사대주의보다 명나라와 청나라 사이에서 실리적 외교를 중시한 왕으로 평가받는다.

그의 실리적 외교는 명나라에 대한 배신으로 인식되었는데 천제에 대한 광해군의 입장 또한 같은 맥락에서 신하들이 등을 돌린 하나의 이유가 되었을 것이다.(인조반정) 광해군과 신하들이 천제를 두고 첨예하게 부딪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실록자료 12) 세조조의 교사 때에 사용한 옥폐와 원구단의 설치를 묻다

1616년 광해군일기[중초본] 106권, 광해8년 8월17일

전교하였다. "(중략)원구단을 어디에 설치할 것인가? 원구단을 속히 옛 전례에 의거하여 수치(修治)하는 것이 마땅할 듯하다. 모두 서둘러 상세히 의논하여 처리하라."

●실록자료 13) 홍문관이 차자를 올려 남교 친제를 반대하다

1616년 광해군일기[중초본] 106권, 광해 8년 8월 20일

홍문관이 차자를 올리기를,

"(중략) 교제(郊祭)는 예 가운데에서도 큰 것입니다. 오직 천자라야 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노(魯)나라의 교체(郊禘)를 공자가 비난하였습니다. 성인의 가르침은 지극히 엄한 것입니다. 이번에 남교에 친히 제사를 지내려는 것은 이미 제후가 행할 수 있는 예가 아닌데, 원구단을 쌓으려 하고 날을 이미 잡았으니 신들은 이에 의혹스러움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중략) 작은 예도 감히 법도를 넘어서는 안 되는데 중대한 예를 어찌 천자를 핍박하면서 시행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이로움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해로움만 있을 것입니다.

(중략)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흔쾌히 공론을 따르시어 남교에 친히 제사를 지내겠다는 명을 속히 중지하소서." 하니, 답하기를,"나의 생각은 이미 양사에 하유하였다."하였다.

반정으로 등극한 인조는 사실상 허수아비와 같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 인조도 소격

서를 재건하고자 하였는데 신하들의 반대에 철회할 수 밖에 없었다. 천제에 대해 신하들이 얼마나 완강하였는지 알 수 있다.

●실록자료 14) 음성 현감 정대붕이 소장을 올려 소격서와 추숭하는 일에 관해 논의하다

1630년 인조실록 23권, 인조 8년 8월 2일

음성 현감(陰城縣監) 정대붕(鄭大鵬)이 소장을 올려 소격서(昭格署)와 추숭(追崇)하는 일에 대해 논하니, (중략) 그 소장의 내용은 "소격서는 일월성신(日月星晨)의 초제(醮祭)를 맡고 있습니다. (중략) 그런데 임진왜란 이후 폐기시킨 채 회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략) 아울러 다시 의논하지 마소서."하니, 상이 따랐다.

실록 이외의 당시 기록에도 조선시대 유학자들의 이러한 입장을 재차 확인할 수 있다. 조선 중기에 이르러 유교적 지배이념은 더욱 견고해졌다. 따라서 천제에 대한 사림(士林)의 입장 또한 견고해졌는데 지봉유설(芝峰類說, 이수광, 1614년 광해군)에는 이율곡이 마니산에 천제를 지내려는 선조를 좌도(左道=邪道)라며 만류한 기록이 나온다.●자료 1) 같은 내용이 정약용의 목민심서 예전육조에도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율곡(栗谷)은 초제(醮祭)에 쓰는 청사(靑詞)(※주4)의 저술(著述)을 사절하였다.' ●자료 2) 이로써 조선시대 유학자들의 천제에 대한 인식은 조선왕조실록의 기록과 같음을 알 수 있다.

※주4 청사(靑詞) : 도교(道敎)에서 기도할 때 쓰는 축문(祝文). 푸른 종이에 붉은 글씨로 썼기 때문에 청사라 한다.

다. 조선 후기 (18세기, 연산군~현종)

학문에 해박하여 신하들을 직접 가르치기도 한 정조는 후기 조선의 중흥기를 열었다고 평가받는다. 정조는 세조 이후 원구단이 남단이라는 이름으로 격하된 것을 지적하며 원래대로 돌릴 것을 명하면서 제사를 지내는 관리의 품계를 원래대로 높이라고 강하게 전교하고 있다. 원구단을

회복하려는 정조의 의지가 보이는 기사이다.

●실록자료 15) 남단의 일로 전교하다

1792년 정조실록 35권, 정조 16년 8월 12일

전교하기를, "지금의 남단(南壇)은 바로 옛날 교사(郊祀)하던 원구단(圜丘壇)이다. 예(禮)에 사서인(士庶人)은 오사(五祀)에 제사할 수 없고, 대부(大夫)는 사직(社稷)에 제사할 수 없으며, 제후(諸侯)는 천지(天地)에 제사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 오직 기(杞)·송(宋)·노(魯)나라만이 제후로서 제사한 것은 혹 대국(大國)의 후손이거나 혹은 원성(元聖)의 공로를 인해서였다. 우리 동방은 나라를 세운 것이 단군(檀君)으로부터 시작되었는데 역사에서는 하늘에서 내려와 돌을 쌓아 제천(祭天)의 예를 행하였다고 하였다. 그 후에도 모두 그대로 따르고 있는 것은 대국에서 분모(分茅)를 받지 않았고 크게 참람하기에 이르지 않기 때문이다. 아조(我朝)에 이르러서는 혐의를 구별하고 미세함을 밝히는 뜻이 엄하여 원구단의 예가 혹 소국(小國)에서 감히 지낼 제사가 아니라 하여 세조(世祖) 이후에는 원구단의 호칭을 남단이라 고쳐 일컫게 되었으니, (중략) 빨리 원래의 의식(儀式)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되니, 일이 전례(典禮)에 관계되는 바 대신에게 물어 의논하여 아뢰라.

Ⅳ 대한제국시대 천제에 대한 인식 (조선왕조실록을 중심으로)

정조이후 조선은 쇠락(衰落)의 길을 걷는다. 현명한 왕의 출현을 경계한 세도가들은 수렴청정과 강화도령 철종 같은 허수아비 왕을 내세웠고 관리의 부패는 극에 달한다. 이른바 세도정치 시대가 이어졌다. 나라 곳곳에서 민란이 일어나고 유교질서를 위협하는 서학(천주교)이 퍼져나간다. 조선 말기 안팎으로 혼란한 시기에 집권한 흥선대원군은 무엇보다 왕권강화에 집중한다.

조선왕조실록에 '원구단(圜丘壇)'에 대한 90여건의 기사 중 50건 이상이 고종실록(대한제국 포함)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에서 당시 위기의 조선을 바로 세우기 위한 정신적인 구심을 천제(天祭)에 두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이전 시대와 확연히 다른 점은 신하들도 더 이상 유교의 예법(禮法)을 들어 반대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는 명나라의 멸망이후 실리 위주의

학문인 실학이 등장하는 등 유교 사대주의라는 명분에서 많이 벗어나 자주성을 회복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었다. 조선은 드디어 제후국에서 벗어나려 하고 있었고 그 정신적 구심은 원구단과 황제가 친제(親祭)하는 온전한 천제(天祭)의 복원이었다.

훗날 고종이 재건하고 친히 천제를 지냈으며, 대한제국 선포와 황제 즉위식을 거행한 원구단에 대한 모든 권한을 조선총독부로 이양했다는 것은 황제의 '천제 지낼 권리'를 빼앗긴 것이었다.(1911,순종) 1913년 일제는 원구단을 허물고 그 자리에 철도호텔을 짓는다. 원구단과 함께 지어진 부속건물 황궁우(皇穹宇)는 현재 서울 웨스틴조선호텔 경내에 있다.

●실록자료 16) 예조 판서 김병국이 해당 분야의 별자리에 제사를 지낼 것을 아뢰다

1865년 고종실록 2권, 고종 2년 11월 11일

예조 판서(禮曹判書) 김병국(金炳國)이 올린 상소의 대략에, "(중략) 우리나라는 신라(新羅)·고려(高麗) 시대부터 제천의식(祭天儀式)이 있었는데 우리 태종(太宗) 때에 이르러 마침내 원구단(圜丘壇)의 제사를 폐지해 버렸습니다. 원구단의 제사를 지낼 수는 없으나 해당 분야의 성신(星辰)에 대해 제사를 지냈다는 근거는 매우 많이 있습니다. (중략) 사전(祀典)을 삼가 행하여 하늘의 복을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하니, 비답하기를, "(중략) 제후(諸侯)의 나라에서도 해당 분야의 성신에 대하여 제사를 지냈다는 증거로 삼을 수 있는 옛 사적이 있다. 지금 진달한 내용은 실로 내 뜻에 맞을 뿐 아니라 대왕대비의 하교를 경건히 이어 받은 것이기도 하다. 이제 의견들을 물어보게 하려고 하니 경은 해량하도록 하라." 하였다.

흥선대원군은 1864년 어린 고종을 대신해 집권하다 1873년 하야 했으므로 엄밀하게 따지면 위 기사는 흥선대원군의 정책이라고도 볼 수 있다. 천제와 원구단에 대한 인식이 그 이전과 변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집권초기 대원군의 왕권확립을 위한 노력을 살펴볼 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기사이다.

●실록자료 17) 원구단을 건축하도록 명하다

1895년 고종실록 33권, 고종 32년 윤5월 20일

원구단(圜丘壇)을 건축(建築)하라고 명하였다.

●실록자료 18) 왕태후 폐하의 위호를 가상하는 절차를 시임 의정과 원임 의정 등에게 문의하기를 명하다

1897년 고종실록 36권, 고종 34년 10월 4일 양력 (대한광무(光武) 1년)

장례원경(掌禮院卿) 김영수(金永壽)가 아뢰기를, (중략)

"황제의 자리에 즉위할 길일을 잡아서 주하(奏下)하였습니다. 의절(儀節)을 마련해야 하는데 역대의 전례를 상고하니, '원구단(圜丘壇)에 고유제(告由祭)를 한 다음에 교단(郊壇)의 앞에 자리를 만들고 황제의 자리에 나아가 오른다. 이어 종묘(宗廟)와 사직(社稷)에 나아가 고하는 제사 의식을 끝낸 후에 정전(正殿)으로 돌아온다. 그러면 백관(百官)들이 표문(表文)을 올려 축하를 하고, 드디어 관원을 보내 황후를 책봉하고 황태자를 책봉하며, 다음날 세상에 조서(詔書)를 내려 알린다.' 고 하였습니다. 이번에도 이대로 마련하여 거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외세의 침략이 노골화 되던 시기, 1894년 갑오농학혁명과 청일전쟁, 그 이듬해 1895년 명성황후 시해사건(을미사변)을 겪은 고종은 이듬해인 1896년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한다. 이른바 아관파천이다. 고종은 정국을 타개할 구상을 가지고 1897년 1년 만에 덕수궁으로 환궁한다. 이 시기 원구단 설립과 천제 제의(祭儀)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진다. 원구단과 천제는 황제와 새로운 나라 대한제국의 상징이었기 때문이다. 1897년 10월 12일 고종은 원구단에 나아가 하늘에 고하고 황제로 즉위하였다.

●실록자료 19) 시임 대신과 원임 대신 이하의 관리들을 인견하다

1897년 고종실록 36권, 고종 34년 10월 11일 양력 (대한광무(光武) 1년)

시임 대신(時任大臣)과 원임 대신(原任大臣) 이하를 인견(引見)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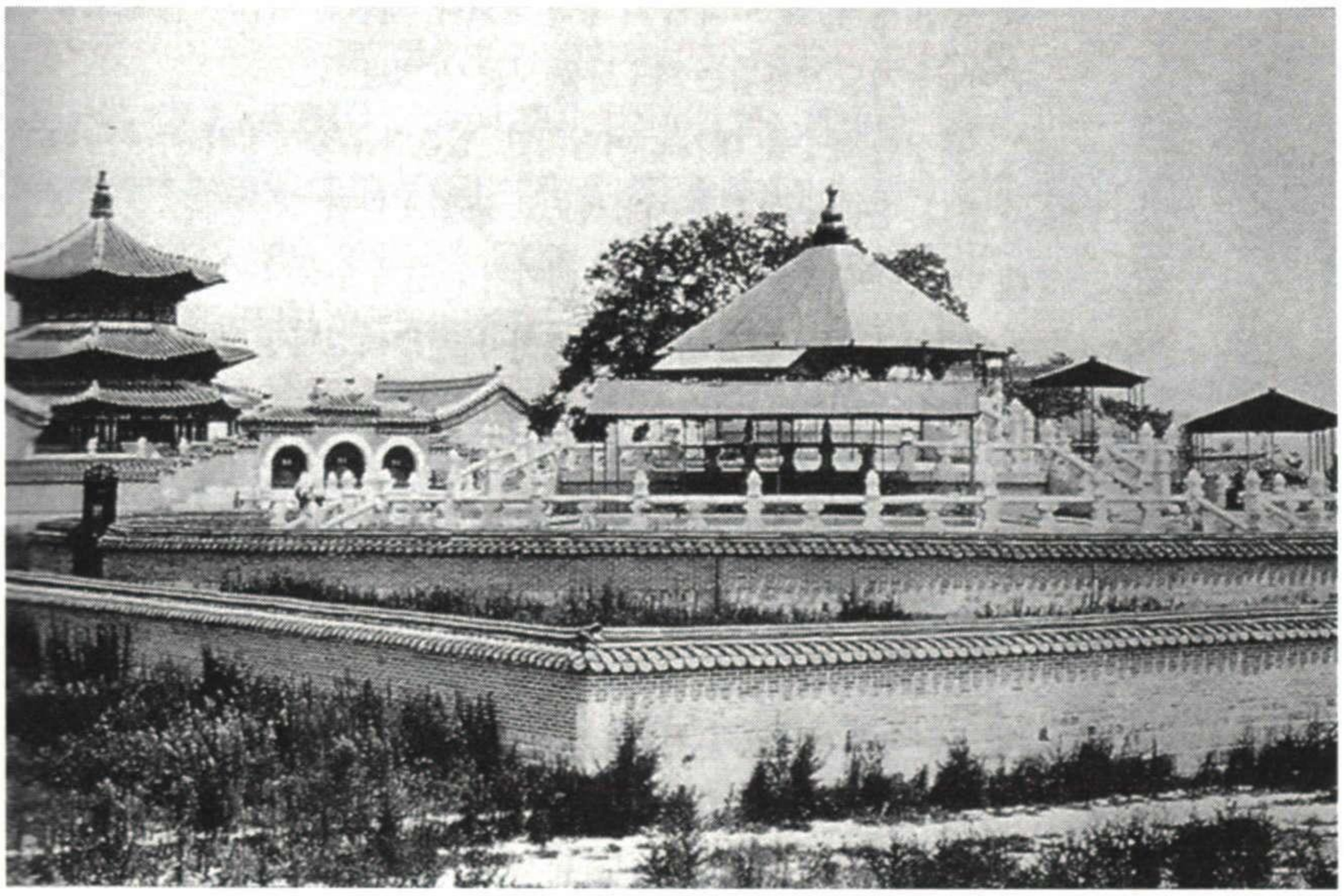
상이 이르기를, "경 등과 의논하여 결정하려는 것이 있다. 정사를 모두 새롭게 시작하는 지금에 모든 예(禮)가 다 새로워졌으니 원구단(圜丘壇)에 첫 제사를 지내는 지금부터 마땅히 국호(國號)를 정하여 써야 한다. 대신들의 의견은 어떠한가?"

(중략) 상이 이르기를, "국호가 이미 정해졌으니, 원구단에 행할 고유제(告由祭)의 제문과 반조문(頒詔文)에 모두 '대한'으로 쓰도록 하라." 하였다.

1907년 대한제국이 건국한지 11년 후 헤이그 특사 사건으로 강제 퇴위 당한 고종의 뒤를 이어 즉위한 순종은 1910년 8월 29일 경술국치(한일병탄)를 당하게 된다. 그리고 그 이듬해인 1911년 원구단을 조선총독부에 인계한다. 황제의 자격으로 천제를 회복한지 500여년 만에 다시 천제를 일제에 빼앗기고 만 것이다.

●실록자료 20) 환구단(원구단), 사직서의 건물과 부지를 총독부에 인계하다

1911년 순종실록부록 2권, 순종 4년 2월 20일 양력 (일본명치(明治) 44년) 원구단(圜丘壇), 사직서(社稷署)의 건물(建物)과 부지(敷地)를 모두 총독부(總督府)에 인계(引繼)하였다.



중앙이 원구단(圓丘壇). 3개의 단으로 이루어졌고 맨 윗단은 지붕으로 덮여 있다. 왼쪽은 현재 남아 있는 황궁우(皇穹宇)이다.

1911년 원구단을 인계받은 조선총독부는 1913년 원구단을 허물고 철도호텔을 지었다. 오른쪽에 황궁우가 보인다.

V 조선시대 태백산 천제문화 (실록, 그 외 자료)

조선시대 지배계층인 조정과 양반들의 천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는 별개로 태백산 인근지역의 백성들은 그 이전 시대에 늘 그래왔던 것처럼 하늘에 제사지내고 기도하기 위해 끊임없이 태백산을 찾고 있음을 실록을 비롯한 여러 기록에서 찾아볼 수 있다. 백성들에게 태백산은 하느님이 내려와 계신 곳, 성지(聖地)였다. 조선왕조실록에 태백산에서 행해진 천제관련 기사를 살펴보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1) 삼국시대(이전)부터 태백산에서는 천제가 행해져 왔음을 지배계층도 잘 알고 있었다.

2) 태백산에는 태백천왕당太伯天王堂, 신사神祠라는 이름의 사당과 천제단이 있었다. 천왕(天王), 신(神)이라는 호칭에서 보듯 산신(山神)보도 높은 하늘, 하느님, 또는 단군(천왕)을 모신 사당이었음을 알 수 있다.

3) 조선시대에는 태백산 천제가 민간차원에서 성행했다. 특히 강원, 충청, 경상도의 백성들이 많이 찾았다.

4) 태백산 천제의 형식은 유교나 도교가 아닌 무속에 가까운 민간신앙이었음을 알 수 있다.

5) 유교 지배계층은 이러한 민간차원의 태백산 천제문화에 호의적이지 않았다. 백성들이 태백산에서 사사로이 기도하고 천제를 지내는 것에 대해서는 왕이나 신하 모두 귀신을 섬기는 음사(淫祀)로 규정하여 통제하려고 하였으나 완전히 근절시키지는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6) 관은 태백산 천제에 참석하는 백성들에게 소나 세금(베)을 걷기도 하였고, 역관을 만들어 편의도 제공하였음을 알 수 있다.

7) 사대주의에서 점차 자유로워지는 조선후기(고종)부터는 태백산 천제(기도)에 대한 국가적 인식이 과거 삿된 음사(淫祀)에서 국가의 안녕을 기원하는 위치로 인식이 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8) 구한말 외세의 침략 속에서 자주적인 의식을 가진 의병과 민족종교인들이 태백산에서 천제와 기도를 행하며 나라를 구할 것을 하늘에 기원하고 맹세하였다. 태백산은 구한말과 일제시대에 나라 잃은 백성들의 정신적 구심점 역할을 하였다.

●실록자료 21) 한해 대책에 대한 우사간 박안신 등의 상소문

1426년 세종실록 32권, 세종 8년 4월 12일

우사간 박안신(朴安臣) 등이 상소(上疏)하기를, (중략)

1. 강원도와 함길도의 신세포(神稅布)는, 처음에 무당들이 백성의 이익을 빼앗기 위하여 함부로 광탄(誑誕)한 설(說)을 가지고 민속(民俗)을 유혹시켜, 태백산(太白山)의 신(神)에게 제사하고, 혹은 한 자나 되는 베를 사용하여 신(神)의 폐백으로 하여 무당이 취하여 썼는데, 소재(所在)한 수령들은 무당들이 이익을 독차지하는 것을 미워하여, 드디어 그 베를 취하여 관용으로 쓰게 되니, (중략) 원컨대 지금부터는 그 베를 사용하여 신을 섬기는 습속을 엄격히 금지하고, 그 베를 징수하지 말게 하여, 부당하게 징수하여 백성을 시끄럽게 하는 폐단을 막을 것. (중략) 임금이 소(疏)를 보고 말하기를, "(중략) 그 신세포(神稅布)와 잠실(蠶室)의 일은 정부와 여러 조(曹)가 함께 의논하여 아뢰라."

태백산 천제에 참석하는 백성들에게 관에서 신세포라는 세금을 거두었고 이에 폐단이 나타나

자 조정에서 조치를 취하였다는 기사이다. 세금을 거둘 정도로 많은 백성이 태백산을 찾았음을 알 수 있다. 또 세금으로 고통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태백산을 많이 찾아 왔음을 알 수 있다.

●실록자료 22) 세종실록 153권, 지리지 강원도 삼척 도호부

삼척 도호부(三陟都護府)

태백산(太伯山) 【부(府)의 서남쪽에 있다. 신라에서 오악(五嶽)을 정할 때, 북악(北岳)으로 하였다. 사당이 있는데, 이름을 태백천왕당(太伯天王堂)이라 하였다. 여러 고을 사람들이 봄·가을에 제사를 지낸다. 】

태백산이 신라시대부터 중요시 여겨져 왔고 백성들이 천제지내는 문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실록자료 23) 집현전 직제학 양성지의 춘추대사·오경·문묘 종사·과거·기인 등에 관한 상소

1456년 세조실록 3권, 세조 2년 3월 28일

집현전 직제학(集賢殿直提學) 양성지(梁誠之)가 상소(上疏)하기를,

"(중략) 명산대천(名山大川)의 제사는 모두 삼국과 전조의 구제를 의방해서 한 것이므로 의논할 만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용흥강(龍興江)은 우리 태조(太祖)께서 흥운(興運)하신 땅이고, 묘향산(妙香山)에 이르러서는 단군(檀君)이 일어난 곳이며, 구월산(九月山)에는 단군사(檀君祠)가 있고, 태백산(太白山)은 신사(神祠)가 있는 곳이며, (중략)

●실록자료 24) 권주가 말하기를,

1490년 성종실록 236권, 성종 21년 1월 9일

"신이 보건대 강원도(江原道)는 그 풍속이 귀신과 음사(淫祀)를 숭상하여 태백산(太白山)에 모든 백성들이 가족을 데리고 가서 재계하고 유숙하며 혹은 과부(寡婦)가 여러 날 유숙하는 것도 있으니, 풍속을 손상하고 허물어뜨림이 이보다 더 심한 것이 없습니다. 청컨대 엄금하게 하소서." 하

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 같은 일은 본도 관찰사(觀察使)가 마땅히 검찰할 것이니, 글을 내려 유시(諭示)하라." 하였다.

백성들이 온 가족과 함께 태백산에 찾아와 제의를 행하였는데 남존여비(男尊女卑)와 같은 유교적 관점으로 볼 때 반사회적인 행위로 규정하여 규제하려고 했음을 알 수 있다. 실록 외에 조선시대 관리, 양반계층이 기록한 태백산 천제를 살펴볼 때 이러한 관점은 조선시대 내내 크게 변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자료 3) 성현(成俔, 1439~1504, 세조 때)의 『허백당집(虛白堂集)』「신당퇴우설(神堂退牛說)」

'태백산의 신은 어떤 신인가? 그 산은 동쪽으로 큰 바다에 들어가니 삼척이 되고 서쪽으로 뻗은 줄기는 영춘이 되고 남쪽으로 뻗어서린 산줄기는 죽계의 여러 고을 경계를 이룬다. 산이 비록 높으나 제사를 주관하는 사전자가 없으니 이것은 나라에 공을 세운 백성이 없기 때문이다. 삼도(강원,경상,충청)의 사람들이 산 꼭대기에 당을 짓고 상(신상,단군상)을 만들어 모시고 제사한다. 철마다 오고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서로 어깨를 부딪치고 앞 사람의 발뒤꿈치를 밟을 정도이다. 제사를 마치고는 각기 소를 신좌 앞에 매어 놓고 뒤돌아 보지 않고 간다. 뒤돌아 볼 것 같으면 신이 불공한 것을 알고는 벌을 준다고 한다. 삼일이 지난 후에 주군(관)에서 거두어 쓰는데 퇴우라고 한다.'

●자료 4) 삼척도호부사(三陟都護府使)를 지낸 미수(眉叟) 허목(許穆, 1595~1682, 숙종 때)의 시문집인 『미수기언(眉叟記言)』괴조(怪條)

'태백사(太白祠)에는 원근에서 몰려 온 사람들이 빌며 제사하는데 이로써 길흉의 응감이 있다고 한다.'

●자료 5) 같은 책 퇴우조(退牛條)

'원근에서 태백의 신령을 경쟁하듯 모시니 무릇 기도하여 액을 면코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제단 아래에 소를 바친다.'

태백산에 봄 가을로 찾아오는 백성의 성지순례 모습과 살아있는 소를 제물로 바치고 그 소를 다시 관에서 거두어 썼음을 알 수 있다. 소는 농경시대에 목숨보다 소중한 재산이었으니 소를 제물로 쓰는 태백산 천제의 위상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농경사회인 조선시대에는 소를 도축하는 것을 엄격하게 관리하였으므로 관에서도 제물로 바쳐진 소(退牛)를 거두어 다시 농사에 활용하였을 것이다. 동국여지승람에도 동일한 기록이 있다.

●자료 6)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 봉화현(奉化縣) 역원(驛院) 조 도심역(道深驛)에 대한 기사

'도심역은 봉화현 남쪽 5리에 있다. 옛날에는 봉화현 북쪽 30리에 있었는데 태백산 천제를 폐지한 뒤로 이곳으로 옮겼다.'

동국여지승람은 조선 성종(1530년) 때 완성된 지리서이다. 위 기록을 살펴보면 도심역은 태백산으로 천제를 올리러 가는 관리와 백성의 편의을 위해 설치한 것임을 알 수 있는데, 나라에서 태백산 천제를 금지한 이후에는 이용객이 적어져 역관을 태백산에서 남쪽(봉화쪽)으로 옮겼다는 기록이다.

●자료 7) 정약용(丁若鏞, 1762~1836,정조 때)의『목민심서(牧民心書)』「예전(禮典) 6조」

'김치(金緻 1577~1625,선조~인조)가 영동(경상)에 관찰사로 와서 태백산 신사(太白山神祠)를 헐었다.'

목민심서에 따르면 경상감사 김치(金緻 1577~1625,선조~인조)가 태백산 천제를 금지하였고, 이보다 앞선 1530년 편찬된 동국여지승람(자료 6)의 기록으로 볼 때 그 이전에도 폐지 된 적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는 별개로 불교의 승려에 의해 태백산 천제가 폐지된 기록이 있다.

●자료 8) 삼척부사를 지낸 허목(許穆)의 척주지(陟州誌, 1662년,현종)

'우리 효종 8년(1657년)에 충학이란 중이 있어 (태백산)천왕사를 불태우니 제사하는 일이 없어졌다'

이는 3가지 가능성으로 추측해 볼 수 있는데 ①당시 불교계 또한 태백산 천제를 탐탁치 않게 인식했을 가능성 ②천제를 금지한 당시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한 행위 ③ 충학이라는 중의 개인적 일탈이다. 어쨌든 태백산 천제문화는 여러모로 탄압을 받았음이 분명하다.

조선왕조실록에서 태백산 천제(기도)에 관한 기록 중 긍정적인 기록은 조선 후기 고종 대에 와서 비로소 찾아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는 옛날부터 태백산 등 명산대천에서 임금이 직접 제사하고 기도하는 풍습이 있었는데 나라의 명운을 길게 한다고 기록하였으니 이는 태백산 천제문화가 500년 만에 원래 의미로 신원회복이 된 것이라고 해석 할 수 있다.

●실록자료 25) 의복 제도를 고치는 일에 관하여 김상봉이 상소하다

1884년 고종실록 21권, 고종 21년 6월 17일

청풍(淸風) 유학(幼學) 김상봉(金商鳳)이 올린 상소의 대략에, "(중략) 명산대천(名山大川)에 제사를 지내 축원하는 것은 옛날의 명철한 임금들도 다 행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백두산(白頭山), 금강산(金剛山), 지리산(智異山), 태백산(太白山), 계룡산(鷄龍山) 다섯 산은 다 나라를 수호하는 명산이니 지성으로 기도하면 나라의 명맥과 운수를 길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략)" 하니, 비답하기를, "상소를 보고 잘 알았다." 하였다.

조선후기(19세기) 1825년 또는 1885년(을유년)에 지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무당내력(巫黨來歷, 난곡 저, 서울대학교 규장각에서 영인본으로 출판함)에는 당시 서울에서 행해진 무당들이 행한 서울 굿 열두거리 그림과 기록이 자세히 담겨 있다. 당시 양반으로 추정되는 난곡이란 이름을 쓴 저자는 서울 무당들이 굿을 하기 전 태백산을 바라보며 성령 감응을 세 번 외치는데 이를 단군청배라고 기록하고 있다. 세월이 흐른 지금도 태백산은 무속인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는데

교통이 불편했던 조선시대에도 태백산은 성령(聖靈,하느님)과 단군이 계시던 곳이라는 인식이 있었음을 능히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자료 9) 무당내력(巫黨來歷, 19세기)

'치성할 때 무녀는 손에 백지를 쥐고 태백산을 바라보고 성령 감응을 세 번 부르는데 이를 단군청배라고 한다. 근일에는 최장군 청배라고 하는데 진실을 크게 잃은 것이다.'

태백산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태백산 산신으로 좌정하였다고 알려진 단종에 대한 민간 설화이다. 태백산 인근과 영월지역에 널리 전해지는 이 설화는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이긍익,1736~1806)과 상동민전(上東民傳,홍직필,1776~1852,매산집)에도 그 기록이 전한다. 백성들은 억울하게 죽은 어린 왕을 추모하며 내세에는 억울함을 풀고 권위를 회복하기를 염원했다. 이 설화 속에는 한(恨)이 풀리고 염원이 이루어지는 곳이자 정의가 이루어지는 신성한 곳, 태백산에 대한 백성들의 믿음이 보인다. 태백산에 대한 백성들의 믿음 속에는 마치 천군(天君)이

하늘에 제사하며 죄인이 도망쳐 들어가도 관군이 들어갈 수 없다던 삼국지 위지 동이전에 나오는 삼한의 소도(蘇塗)가 연상된다. 한자는 다르지만 태백산에는 소도동(所道洞)이 있다.

Ⅵ 구한말 태백산 천제 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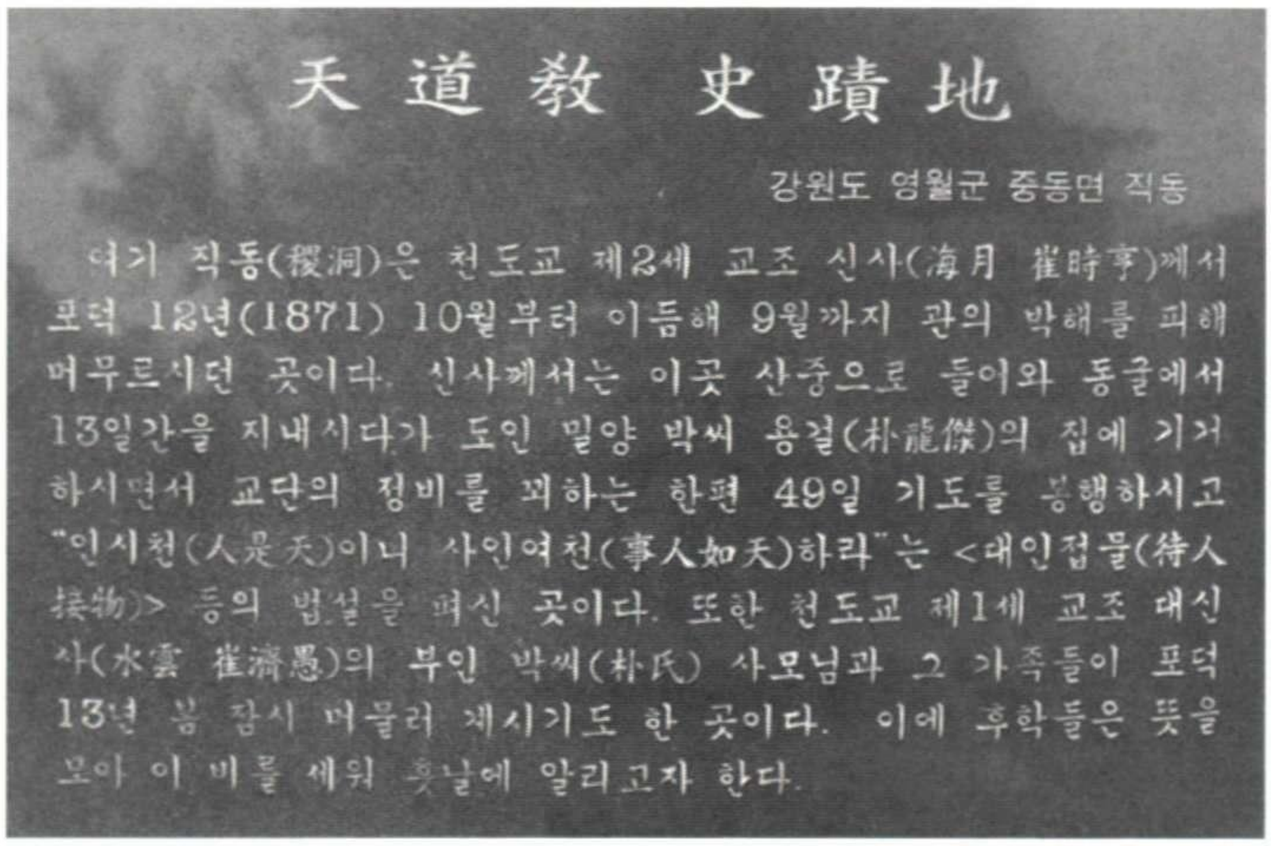
구한말 국권이 위태롭게 되자 최초의 평민의병장 신돌석(申乭石)을 비롯한 의병들과 동학, 대종교 등 민족종교를 신앙하는 이들이 태백산에서 기도와 천제와 기도(수련)를 행하였다. 태백산은 하늘의 기운이 내려온 민족의 성지요 구심점이었다. 때문에 제물을 바쳐 나라를 구하고자 하는 맹세를 하늘에 올리고, 나라를 구해달라고 하늘에 기도하며, 나라를 구할 힘을 받고자 태백산에 올라 수련 했던 것이다. 태백산은 망국의 백성들에게 정신적 안식처였다. 구한말 태백산에 기도한 우국지사의 예는 다음과 같다.

1) 구한말 태백산과 울진 일대에서 항일 의병활동을 한 최초의 평민의병장으로 평가받는 신돌석(申乭石1878~1908) 장군이 거병에 앞서 태백산 천제단에서 백마(白馬)를 잡아 하늘에 제사하며 나라 구할 것을 맹세하였다.

2) 동학의 2대 교주 최시형이 태백산에서 피신과 수도를 했다는 기록은 여러번 보인다. ① 1863년(철종) 동학의 1대 교주 최제우가 사형당하자 2대 교주가 된 최시형은 이듬해 태백산으로 숨어들었다. ②1871년 영해 교조신원운동으로 위기에 직면한 최시형은 태백산 자락인 영월 중동으로 피신하여 49일 수련을 마친 후 '사람이 곧 하느님이니 사람을 하늘과 같이 섬기라' 는 사인여천(事人如天)의 가르침을 폈다. ③1873년 10월에는 태백산 갈래사(葛來寺)의 적조암(寂照庵)으로 들어와 49일 기도를 마쳤다. ●자료 10)

3) 1909년 나철이 단군을 모시는 대종교를 중광하였는데 이후 대종교인들이 태백산 정상의 천제단을 보수하였다고 한다.

4) 1937년 태극교도들이 태백산에서 조선의 독립을 기원하는 천제를 지냈다.



태백산 자락인 영월군 중동면 직동리에 있는 천도교 사적지 비석

5) 1942년 태백산 남쪽 천평마을에서 윤상명, 유형호, 이낙림, 유형남 등 주민 50여명이 허물어진 천제단을 다시 쌓고 대한독립원제를 올렸다. 이후 최모 밀고자에 의해 20여명이 서대문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루었고 그중 몇 명은 옥사하였다고 한다. (3,4,5 영산태백 (김강산, 태백문화원), 사료로 읽는 태백산과 천제 (김도현, 강원도민일보) 참조)

Ⅶ 결론

우리 민족은 단군 이래로 높은 산에 제단을 쌓고 하늘에 제사하는 문화가 있었다. 신라 초기에는 태백산을 북악(北岳)으로 정하고 왕이 직접 행차하여 천제를 지냈으며, 친히 행차하지 못할 때에는 태백산을 바라보며 망제(望祭)를 지냈다. 하느님의 아들 환웅이 세상을 이롭게 하기 위해 태백산에 내려 왔다는 단군사화(檀君史話), 광개토태왕비의 천제지자(天帝之子)라는 구절에도 나타나 있듯이 우리민족이 스스로를 하늘의 자손이라고 믿어 온 자아 정체성의 발현이었다. 하늘의 자손이 그 부모격인 하늘을 만나는 것은 당연한 예의였고 하늘을 만나기 위해서는 신성한 산에 올라야 했던 것이다. 이러한 자의식의 바탕으로 한 제천의식(祭天儀式)은 중국의 기록에도 나와 있듯이 부여의 영고(迎鼓), 동예의 무천(舞天), 고구려의 동맹(東盟)이 있었고 고려에는 팔관회(八關會)가 있었으며 왕이 직접 원구단에서 천제를 지냈다고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다.

하지만 유교와 사대주의를 국시로 한 조선왕조의 건국으로 한민족의 제천에 대한 오랜 관념

은 정면으로 도전을 받게 되는데 조선왕조실록 곳곳에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명분과 의리를 중시하고 유학을 숭상하는 지배계층은 예기(禮記)의 '천자(天子)는 천지(天地)에 제사하고 제후(諸侯)는 산천(山川)에 제사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근거로 제후국 신분인 조선의 왕이 직접 천제를 지내는 것을 불경한 것으로 여겼다. 왕조차 감히 천제를 지내지 못하는데 옛 풍습 그대로 태백산과 같은 명산에 양반도 아닌 백성의 신분으로 천제를 지내는 것을 좋게 인식할 리가 없었던 것이다. 지배계층에서도 자주의식을 가진 왕이나 신하는 천제를 주장하였는데, 비록 명을 사대(事大)하는 제후국일지라도 해외(海外)에 있고 분봉(分封)을 받은 것이 아니며, 무엇보다 우리나라는 단군이래로 하늘에 제사하는 문화가 삼국시대와 전 왕조인 고려시대까지 있었으므로 그것을 계승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논리였다. 건국 초기만 해도 이러한 주장은 설득력을 가졌으나 사림(士林)이 중앙으로 집권하는 조선 중기 이후에는 힘을 잃게 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태백산 천제 또한 여러 부침을 겪게 되었다. 국가에서는 여러 번 태백산 천제를 금지했으나 천제를 지내러 오는 백성들의 열망을 막을 수는 없었다. 태백산이 없었고, 태백산에서 천제지내는 백성들이 없었다면 아마도 우리민족의 천제문화는 명맥이 끊어지고 말았을 것이다.

천제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조선 말에 이르러 비로소 이루어진다. 외세와 내부 혼란에 시달리던 조선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천제를 선택한다. 천제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다시 되살아나는 순간이었다. 고종은 원구단을 세우고 천제를 지낸 후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황제에 등극한다. 조선왕조실록에서 태백산 천제에 대한 긍정적으로 평가는 이 시기가 유일하다. 구한말 하루하루 국권을 잃어가던 시기, 나라를 찾겠다는 의병과 애국지사, 외래종교가 아닌 우리 것에서 해법을 찾겠다는 동학 등 민족종교 인들이 태백산으로 모여든다. 태백산은 민족의 정신적 구심점 역할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을 바탕으로 태백산에 내려온 천제문화가 결코 호의적인 환경에서 이루어진 게 아님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강원, 경상도 오지의 백성들이 한민족에게 가장 중요한 문화 중 하나를 지켜왔던 것이다.

인류 사회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해왔던 여러 민족들은 성지(聖地)를 가지고 있다. 그리스에는 올림푸스가 있었고,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이 있으며, 인도는 갠지스강과 히말라야를 성지로 가지고 있다. 일본은 얼마 전(2016) 세계를 움직이는 G7 정상회담을 이세신궁(伊勢神宮)에서 가

졌다. 이세신궁은 일본의 국조(國祖)인 아마테라스 오미카미가 있는 일본 국민의 성지로 매년 500여만명이 찾고 있다. 일본인은 죽기 전에 반드시 참배해야 하는 성소로 여기고 있다고 한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물질문명이 발달하더라도 인간은 인간일 수밖에 없고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인문학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인문학은 인간의 자아 정체성을 찾아가는 학문이다.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 한국인은 누구인가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하늘에 묻기 위해 태백산을 찾아오고 있다. 태백산을 한민족의 성지로, 더 나아가 한류의 성지로 만들 수는 없을까? 만약에 태백산과 천제문화를 지켜온 민초들의 노력과 그 문화적 가치를 재조명 한다면 불가능한 일은 아닐 것이다. 뜻있는 학자들의 많은 연구를 기다린다.

Ⅷ 자료원문과 참고문헌

●실록자료 1) 禮曹啓曰: "吾東方自三國以來, 祀天于圓丘, 祈穀祈雨, 行之已久, 不可輕廢° 請載祀典, 以復其舊, 改號圓壇°" 上從之°

●실록자료 2) 上又問曰: "昭格殿醮星之事, 靈異屢著, 不可忽也, 其餘淫祀, 去之如何?" 經筵官等對曰: "天子諸侯士庶人, 各有所祭之神° 天子然後祭天地, 諸侯然後祭山川° 今我國俗, 雖庶人亦皆祭山川, 禮當禁之°"

●실록자료 3) 敬承府尹卞季良上書° 書曰: 今禱雨而不於天, 臣未見其可也°(중략)

吾東方, 檀君始祖也° 蓋自天而降焉, 非天子分封之也° 檀君之降, 在唐堯之戊辰歲, 迄今三千餘禩矣° 祀天之禮, 不知始於何代, 然亦千有餘年, 未之或改也° 惟我太祖康獻大王亦因之而益致謹焉, 臣以爲, 祀天之禮, 不可廢也°(중략)

臣曰: "天子祭天地, 諸侯祭山川, 此則禮之大體然也° 然以諸侯而祭天者, 亦有之矣°

(중략) 命季良製祭天文, 諭以自責之意甚悉° 季良製進稱旨, 賜廄馬一匹° 季良惑佛諂神, 拜天禮星, 無所不爲, 至於力主東國祀天之說, 非不知犯分失禮, 徒欲以强詞, 奪正理耳°

●실록자료 4) 禮曹判書卞季良請行祭天之禮° 季良啓曰: "臣常願行祭天之禮, 已於往年再達, 而未蒙兪允° 請令行此禮°" 上曰: "予(常)〔嘗〕 聞, 天子祭天地′諸侯祭境內山川° 予但知此禮, 故禋于境內山川, 祭天之禮, 未敢望也°(하략)?" 季良曰: "本國邈在海外, 不與中國諸侯同, 故高皇帝詔曰: '天造地設, 自爲聲敎°' 又前朝王氏已行此禮° 但以上事大之誠, 禮無違貳, 故不欲行°(중략)" " 上曰: "(중략) 然有大旱, 則不得已而有雩之時° 宜與大臣, 稽諸史傳, 參酌以聞°"

●실록자료 5) 己酉朔/遣左議政朴訔, 祀圓壇° 圓壇, 祭天之所也, 旱則就祈焉°

●실록자료 6) 江華: 都護府, 鎭山, 高麗 摩利山′【在府南, 山頂有塹星壇, 壘石築之, 壇高十尺, 上方下圓° 壇上四面, 各六尺六寸, 下廣各十五尺° 世傳朝鮮檀君祭天石壇, 山麓有齋宮° 舊例, 每春秋遣代言設醮,

●실록자료 7) 庚辰/上具冕服登壇, 行祭如儀°

●실록자료 8) 甲戌/親祀圜丘°

●실록자료 9) 癸未/御朝講° 大司諫金世弼′持平李誠彦啓, 以請推用澔, 以明是非, 又請革昭格署, 皆不允°(중략) 且惟天子, 然後祭天地, 諸侯只祀山川, 本國之祀上帝, 不合於禮°(중략) 不答°

●실록자료 10) 丁丑/御朝講°(중략) " 領事金應箕曰: "國家大關事, 則似無矣° 然如昭格署摩尼山之祭, 皆是祭天, 此甚僭禮°"(중략) 左右皆力爭, 亦不允°

●실록자료 11) 上御夕講° 侍讀官李滉曰: "(중략)若祭天′郊祀, 雖非我國所宜爲, 不可不知其禮, 故敢書啓°"

●실록자료 12) 傳曰: "(중략)且圜丘設於何處乎? 圜丘壇速爲依舊例, 修治似當, 竝爲急急詳議以處°"

●실록자료 13) 玉堂 弘文館上箚曰: "(중략) 郊祭, 禮之大者也° 唯天子得以行之, 故魯之郊禘, 孔子非之, 聖人之訓, 至嚴且切° 今此親祀南郊, 旣非諸侯之禮, 圓壇將築, 吉日已涓, 臣等於此, 不能無惑焉° (중략) 禮之小者, 猶不敢踰, 禮之大者, 其可偪而行之乎? 非徒無益, 又有害者°(중략) 伏願殿下快從公論, 亟寢南郊親祀之命°" 答曰: "予意已諭于兩司矣°"

●실록자료 14) 己酉/陰城縣監鄭大鵬上疏, 論昭格署及追崇事° (중략) 其疏曰: 昭格署, 日月星辰醮祭之司也°(중략) 壬辰亂後, 廢而不復°(중략) "竝勿更議°" 上從之°

●실록자료 15) 戊寅/敎曰: "今之南壇, 卽昔日郊祀之圜壇也° 禮, 士庶不得祭五祀, 大夫不得祭社稷, 諸侯不得祭天地, 惟杞′宋′魯以諸侯而祭之者, 或因大國之後, 或酬元聖之功也° 我東建邦, 創自檀君, 而史稱自天而降, 壘石行祭天之禮, 則後皆因之者, 以其不受大國之分茅, 而不至於大僭逼也° 至于我朝, 嚴於別嫌明微之義, 以圜壇之禮, 或涉於小國之不敢以祭, 光廟以後, 圜壇之號, 改曰南壇, 蓋用郡國州縣, 各祭風師′雨師之制也°(중략) 旣知之, 不可不亟修原儀, 事係典禮, 問議大臣以聞°"

●실록자료 16) 禮曹判書金炳國疏略: "(중략) 惟我東自羅′麗, 自有祭天之禮, 而至我太宗朝, 遂罷圜壇之祀° 圜邱之祀, 旣不可擧, 分星之祭, 優有所掾°(중략) 以爲尼祀典而膺天祐°" 批曰: "(중략) 而侯邦之祭, 分野星辰, 厥有故事之可按° 今此所陳, 實合予意, 且承犂然之慈敎矣° 方令詢問, 卿其諒之°"

●실록자료 17) 命建築圜丘°

●실록자료 18) 掌禮院卿金永壽奏: (중략) "卽皇帝位吉日推擇, 奏下矣° 儀節, 當爲磨鍊, 而謹稽歷代已例, 則圜丘告祭禮成後, 設位於郊壇之前° 進登大位, 仍詣太廟′社稷, 告祀禮畢, 還御正殿, 百官上表稱賀, 遂遣官冊皇后, 冊皇太子° 翌日詔告天下矣° 今亦依此磨鍊擧行何如?" 允之°

●실록자료 19) 引見時原任大臣以下°【議政沈舜澤′特進官趙秉世′宮內大臣閔泳奎′掌禮卿金永壽】上曰: "欲與卿等有所議定者矣° 今於一初之政, 百禮俱新, 自今肇禋圜丘之時, 宜用定有天下之號也° 大臣之意何如?"(중략)上曰: "有天下之號旣定, 圜丘壇告由祭文及頒詔文° 竝以大韓, 書之可也°"

●실록자료 20) 二十日° 圜丘壇社稷署建物及敷地, 竝引繼于總督府°

●실록자료 21) 右司諫朴安臣等上疏曰:

(중략) 一, 江原′咸吉道神稅之布, 其初巫覡, 要奪民利, 肆爲誣誕之說, 誘其民俗, 祭太白之神, 或用尺布, 以爲神幣, 而巫覡取用° 所在守令, 惡巫覡之專利, 遂取其布, 以資官用°(중략) 願自今其用布事神之習, 痛行禁理, 勿收其布, 以杜橫斂擾民之弊°(중략) 上覽疏曰: "(중략) 其神稅布及蠶室之事, 政府′諸曹同議以聞"

●실록자료 22) 三陟: 都護府, 太伯山′【在府西南, 新羅擬五嶽爲北嶽° 有祠, 名曰太伯天王堂, 諸郡人民, 春秋祀之°】

●실록자료 23) 集賢殿直提學梁誠之上疏曰:

名山大川之祀, 皆倣三國及前朝之舊而爲之, 多有可議者焉° 龍興江我太祖興運之地, 至於妙香山檀君所起, 九月山有檀君祠, 太白山神祠所在 (하략)

●실록자료 24) 權柱曰: "臣觀江原道, 其俗尙鬼, 淫祀太白山, 大小人民, 挈家而往, 齋戒留宿, 或有寡婦曠日留宿, 傷風敗俗, 莫甚於此° 請痛禁°" 上曰: "如此事, 本道觀察使固宜檢察, 其下書諭之°"

●실록자료 25) 淸風幼學金商鳳疏略: "(중략)名山大川之禱祀祈祝, 古之哲王明辟, 亦皆行之° 我東之白頭′金剛′智異′太白′鷄龍五岳, 皆鎭國名山, 至誠禱祈, 則足以壽國脹祈天命也(중략)" 云云° 批曰: "省疏具悉°"

●자료 1) 李栗谷在玉堂時° 命製摩尼山醮靑詞° 公上劄曰° 殿下旣知其爲左道° 不敢强使諫官製進° 而乃命小臣° 是諫官不可以左道事君° 而講官猶可以左道事君° 此眞儒者之言也° 若非栗谷° 則其有不帖然承當者乎° (이수광의 지봉유설)

●자료 2) 栗谷駁醮靑之詞° (정약용의 목민심서)

●자료 3) 太白山神者何神也 其山東入大海爲三陟 西折而爲永春 南蟠竹溪數州之境 山雖高而不在祀典者 以其無功施於民國也 三道之人搆堂於頂設像而祀之歲時往來者 摩肩接踵 祀畢各繫牛於神座前狼狽不顧而去曰如顧知則神知不恭而罪之矣 過三日然後州郡收而用之名之曰退牛

●자료 4) 太白祠遠近禱祀以爲吉凶立應

●자료 5) 遠近爭社太白之神凡祈禱災厄者必獻牛於祠下

●자료 6) 道深驛 在縣南五里舊在縣北三十里自太白山祭廢後移于此

●자료 7) 昔金綏觀察嶺南° 毁太白山神祠°

●자료 8) 我孝宗八年有浮屠冲學焚其祠淫祀乃止

●자료 9) 致誠時 巫女手執白紙 望太白山 口呼聖靈憾應三遍 謂之檀君請陪 近日 崔將軍請陪失眞大矣.

●자료 10) 侍天敎宗繹史 第六章 太白講道 翌年癸酉冬十月′ 師率姜洙′劉寅常′全聖文′金海成等數十人′齎糧入太白山葛來寺之寂照庵′(중략) 有曰 太白山工四十九′受我鳳八各主定′天宜峯上開花天′今曰 琢磨五絃琴′寂滅宮殿脫世塵′(태백산 공부 49일에 나는 봉황 여덟을(鳳八) 받아 각각

주인을 정했도다. 천의봉(天宜峯) 위는 꽃이 핀 하늘이오. 오늘 오현금(五絃琴)을 갈고 닦아서 적멸궁전(寂滅宮殿)에서 세속의 티끌을 벗었노라.)

■ 참고문헌

조선왕조실록

지봉유설 (이수광)

목민심서 (정약용)

허백당집 (성현)

미수기언 (허목)

척주지 (허목)

동국여지승람

연려실기술 (이긍익)

상동민전 (홍직필)

무당내력 (난곡,서울대학교 규장각)

동학농민혁명 종합지식정보시스템 www.e-donghak.go.kr

영산태백 (김강산저, 태백문화원)

사료로 읽는 태백산과 천제 (김도현저, 강원도민일보)

민속학술용역보고서 태백산천제 (태백시 2009)

국립공원 3050, 자연과 함께! 미래와 함께!

태백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다가오는 2017년은 우리나라에 국립공원 제도가 도입되어 지리산이 최초의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지 50년이 되는 해이며, 공원관리 전문기관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창립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뜻깊은 한해 앞서 태백산은 2016년 8월 22일 우리나라 제22호 태백산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습니다.사계절 언제 봐도 아름다운 태백산은 백두산에서 시작되어 남쪽으로 흐르던 백두대간이 지리산 방향으로 기우는 분기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민족의 영산으로 불립니다.

2016년 8월 22일 백두대간의 중심에 위치한 태백산이 도립공원 지정된지 27년 만에 구역을 넓혀 우리나라 제22호 국립공원으로 지정 되었습니다.

이로써 태백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서 백두대간의 보호 · 관리체계가 확고히 마련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유구한 한민족의 역사 속에서 민족의 뿌리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켰던 태백산천제가 강원도의 자랑에서 2016년 올해부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립공원으로 승격되어 첫 번째 태백산천제를 함께할 수 있게 되어 영광입니다.

태백산은 국립공원 지정과 함께 지역과 상생하는 국립공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안전한 탐방문화 정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태백산의 대표 경관이 태백산천제와 겨울눈꽃 뿐만 아니라 사시사철 아름다운 경관과 자연자원을 지키고 보전함으로써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태백산국립공원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민족의 영산 태백산이 아름다움을 보전한데에는 지역주민들의 노고가 큽니다.

지역주민들의 노고의 결과로 이루어진 태백산국립공원은 태백시민과 태백시의 국립공원에 대한 기대와 여망에 답할 것입니다. 지역브랜드가치 향상과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노력할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 116억 원을 확보함에 따라 태백산국립공원 사무소는 주요사업으로 공원자원조사, 훼손탐방로 복구, 생태이동통로 설치를 위한 타당성조사, 핵심지역 보전을 위한 사유지 매수 등의 자원보전사업과 탐방지원센터 정비, 공중화장실 정비, 안내시설 정비 등 탐방객 편의시설 정비사업과 탐방문화개선 사업을 시행 할 예정입니다.

태백산이 국립공원으로의 시작은 늦었지만 타 국립공원보다 더욱 뛰어난 국립공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태백산국립공원의 가치가 태백산천제와 함께 더욱 널리 알려지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데 더욱 힘쓸 것입니다.

신라 일성왕 천제 행차 재현을 통한 역사적 가치 재조명

태백시청 관광문화과

1. 추진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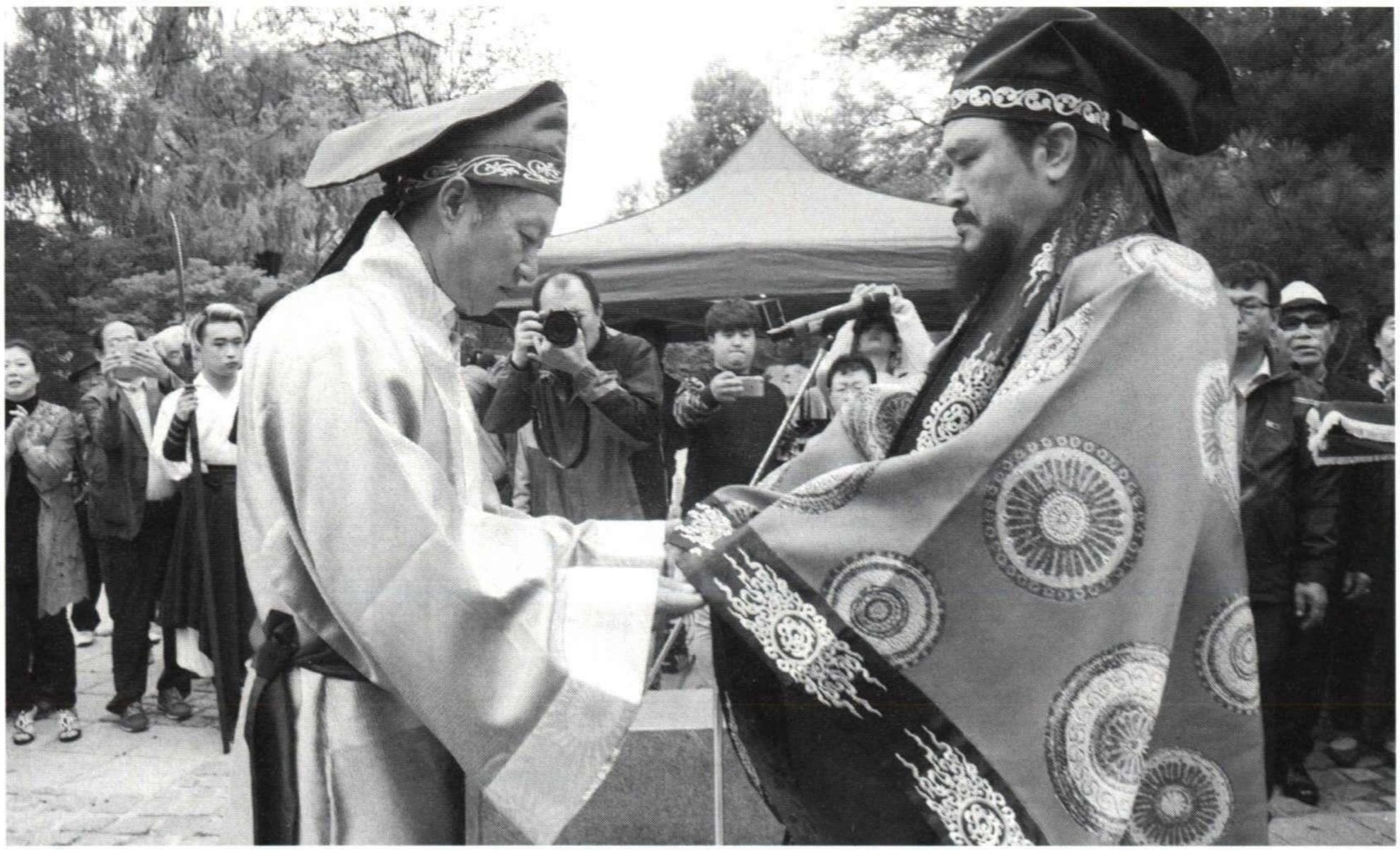
삼국사기 '新羅本紀'에서는 신라 제7대 일성왕 5년(서기138년)에 왕이 친히 북순(北巡)하여 태백산에서 제사를 지냈다는 기록이 명시되어 있음에 따라,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통해 1988년부터 태백문화원 주관으로 실시해오던 태백산 천제와 연계한 일성왕 천제 행차 재현으로 지역의 향토문화를 발굴, 계승, 발전시켜 관광자원화 하고자 2015년부터 본격적인 추진을 준비하게 되었다.

2. 추진현황

태백의 역사성과 정체성 및 문화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소중한 기록인 일성왕 천제 행차는 2세기 무렵의 사건으로 관련된 자료가 전무하다시피 하여 2015~2016년에 걸쳐 학술심포지엄과 학술연구용역을 추진하였으며 지난 2015년12월4일 태백시 주최로 개최한 학술심포지엄에서는 신라 일성왕의 태백산 순행과 친사의 의의, 고신라기 인물상에 나타난 복식 고찰, 신라 일성왕의 순행 행렬 구성에 대하여, 신라 일성왕 태백산 순행행차 재현과 킬러콘텐츠 등을 주제로 관계 전문가들의 열띤 발표와 토론을 통해 '삼국사기 신라본기의 신라 7대 일성왕 순행은 태백산이 역사서에 등장한 최초의 기록이자 천제의 신성한 문화행위가 부각됐던 기록으로 천제

신라 일성왕의 태백산천제 친제 행렬 재현 중 왕의 마차

신라 제7대 일성왕(재위134~154)이 태백산천제 친제(서기138년)의 교지를 내리다



신라 일성왕이 태백산천제의 초헌관(태백시장)에게 홀을 내리다

행렬 경유지 주민들에게도 훌륭한 볼거리를 제공해주었던 일성왕의 태백산 천제는 향토 또는 국가적인 축제로서의 개발가치가 매우 높다' 라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아울러 현재 활발히 추진 중인 학술연구용역은 추정만 이루어진 일성왕 순행 행렬의 구성, 인원, 복식 등의 고증을 목적으로 전문연구기관에 의뢰를 한 상태로 올해 8월말 중간보고된 행차 인원 및 구성에 대한 자료를 근거로 지난 2016년 9월 30일 태백 관내 일원에서 '신라 일성왕 천제에 행차하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1회 행사가 치러졌다.

행렬거리는 태백역에서 출발하여 태백시내를 거쳐 태백시청까지의 약 3.7km구간이었으며, 행렬인원은 220여 명으로 기수, 전령, 놀이광대, 지방관리, 악사, 시녀, 호위무사, 왕 등의 역할과 대고, 수레, 무기, 깃발 등의 장비가 활용되었다.

또한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단순 행차뿐만 아니라, 부대행사로 주요지점에서의 거리공연(풍물놀이, 무용)과 왕이 삼헌관(태백시장, 시의장, 문화원장)에게 홀을 전달하고, 교지를 내리는 일성왕 맞이 퍼포먼스를 구성하여 관람객의 흥미와 관심을 이끌어내고자 했다.

신라 제7대일성왕(재위134~154)의 태백산천제 친제(서기138년) 행렬 재현

신라 제7대 일성왕의 태백산천제 친제 행렬 중 취타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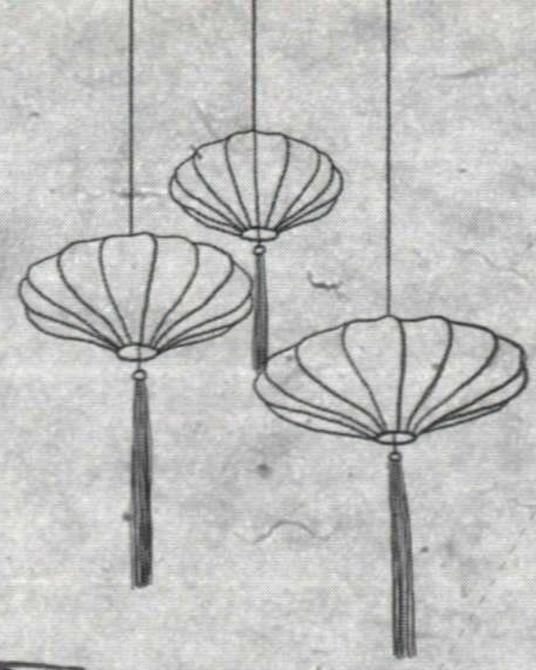
3. 향후계획

지역의 대표 문화행사로 추진을 하고 있는 만큼 민관협력체계 구축 및 상호 유기적 협력을 통해 행사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궁극적으로는 전문성을 가진 관내 민간단체가 주도하는 행사로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한편, 현재 활발히 연구가 이루어져 그 성과가 도출된 다양한 자료들은 대부분 5~6세기 이후의 것들로 신라 일성이사금 재위시기인 2세기와는 시기적으로 상당한 차이가 있어 당시의 시대상황 및 인물상, 복식 등의 정확한 고증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른다.

하지만 이미 확보한 자료 및 성과를 토대로 지속적인 연구를 해나간다면 해답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신라 일성왕 천제 행차 재현 행사를 추진,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또한 장기적으로 태백산 천제와 연계하여 하나의 무형문화재로 계승함은 물론 태백의 대표 문화컨텐츠로 육성하고, 더 나아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위해 태백시에서는 다양한 시도와 노력을 할 것이다.



태백문화

문화 기고

The Taebaek Culture Journal

태백, 역사문화가 숨쉬는 곳으로 만들자-오형상

삼척향교 82회 장의 중국 곡부 외 성지견학을 다녀오면서-정복남

태백산 천제 참제기 (太白山天祭 參祭記)-이상출

태백, 역사문화가 숨쉬는 곳으로 만들자

오 형 상

태백.정선인터넷뉴스 취재부장
석탄산업 합리화 이후 남은 탄광의 문화흔적들

문화(文化)는 영어로 culture로, 사전적 의미로는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 삶을 풍요롭고 편리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가고자 사회 구성원에 의해 습득, 공유, 전달이 되는 행동양식' 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그리고 문명(文明) 은 사회의 여러 가지 기술적, 물질적인 측면의 발전에 의해 이루어진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단어는 비슷하지만 서로 다른 문화와 문명의 차이는 무엇일까?

백과사전을 통해 풀이해보면 문화는 인류가 학습(경험, 교육 포함)을 통해 얻은 정신적인 가치와 이러한 가치가 다시 학습에 의해 사회적으로 전달되어 형성하는 것이다. 언어라는 수단을 통하여 사고를 체계화 하고 추상화하는 과정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문화의 일례는 각종 철학 과학 등을 들 수 있다.

이에 반해 문명은 '인류가 이룩해낸 물질적 기술적 발전을 말한다' 고 백과사전에서는 설명하고 있다. 쉽게 설명하면 인류가 발명과 발견을 통하여 이룩해낸 발전과 다시 학습에 의해 사회적으로 전달되는 것을 문명이라고 하는것이다. 예를 들자면 도구를 사용하는 게 바로 문명의 일례라고 할 수 있다.

문화의 의미는 대단히 넓어서 '이것이 문화다' 라고도 단정지을 수 없고 또, '이것은

문화가 아니다' 라고도 말할 수 없다. 즉, 식사하는 습관도 문화고 옷입는 방식도 문화, 삶의 패턴도 문화의 일부분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지엽적으로 볼 때 태백의 문화는 무엇이라 할 수 있을까?

광산문화 속에서 고정화된 태백의 문화

태백은 과거 석탄의 도시였다. 1930년 상장면(태백시의 옛 행정단위)의 소사로 일하던 장해룡이라는 사람이 금천의 먹돌배기 근처에서 노두에 나와 있는 석탄덩어리를 주워다 면장 책상위에 놓아 둔 것이 일본인 기사 소목탁이의 눈에 띄어 이때부터 석탄을 이용한 연료가 생산되기 시작됐고 이후 태백지역이 탄광도시로 탈바꿈하게 하게 됐다.

태백석탄박물관 홈페이지는 석탄발견과 관련해 비슷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 (중략)다만 기록상으로 보면 삼국사기라든가, 고려사, 평양지 등에 석탄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으며, 이후 일본인들에 의해 본격적인 지질(탄전)조사가 실시되면서 석탄이 발견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1896년 러시아인들에 의해 함경북도 경원, 종성 지방에 민영탄광이 처음 개광되었으며, 남한은 전남화순 구암탄광(현 석공화순)이 1904년에 개발되었습니다. 삼척탄전은 1936년에 석공 도계탄광과 1937년 장성탄광이 개발되어 본격적으로 탄전개발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흔적을 찾아내 1997년 태백문화원에서 최초로 석탄을 발견한 부근에 최초석탄발견지탑을 세우게 되었고 태백시가 주변을 정비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태백이 석탄의 도시라는 것을 입증한 셈이다. 최초석탄발견지탑이나 폐광지, 박물관 등 태백에서 석탄과 관련된 전시관이나 흔적들은 곳곳에서 볼 수 있다.

태백과 태백산천제

그렇다면 태백에는 광산문화 밖에 없는 것일까?

우리가 잘 알 듯 태백에는 태백산(1566.7m)이 있으며 이곳에서 행해지는 태백산천제가 있다. 2016년 8월22일 우리나라에서 22번째로 지정된 태백산국립공원에는 천제단이

있다. 천제단은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곳이다. 우리나라 어느곳에도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곳이 없을 만큼 각별하다.

태백산은 한민족의 시원이 담겨 있는 유서 깊은 산으로 단군의 신비로운 탄생과 활약을 기록한 단군신화의 무대가 됐다. 이같은 내용은 여러 문헌과 태백문화원에서 발간한 '태백산천제' 에서 잘 나와 있다.

〈삼국사기〉 신라본기에 '일성이사금(逸聖尼師今) 5년(138) 겨울 10월에 (왕이) 북방으로 순행하여 친히 태백산에서 제사를 지냈다' 는 기록이 있다. 같은 책에 '기림이사금(基臨尼師今) 3년(300) 3월에 (왕이) 우두주(牛頭州, 지금의 춘천 · 철원을 중심으로 한 강원도 영서지방)에 이르러 태백산을 향해 망제를 지내자 낙랑과 대방 두 나라가 귀순 복종했다' 고 적고 있다.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을 근거로 최근 태백시가 일성왕 거리행차를 통해 옛 기록들을 재조명했다. 물론 〈삼국사기〉에 나와 있는 몇 글자로 표현하기에는 억지스러운 면은 있다. '제사를 지냈다' 는 것 만 나와 있을 뿐 고을에 와서 행차했었는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신라왕이 이곳까지 와서 하늘에 제사를 지냈다는 것에는 이의를 달지 않는다. 그만큼 태백산이 신령스럽고 고귀한 곳이기에 많은 이들이 태백산을 찾는다. 특히 10월3일 개천절 때 행해지는 태백산천제 행사에 1천명이 넘게 찾는다.

태백산천제를 마치고 제관은 등산객들에게 제사음식을 나눠준다. 수험생을 둔 학부모들은 밤을, 아이를 낳지 못한 아낙에게는 미역을 받아두면 효험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태백산을 오르면 소원이 이뤄진다는 믿음이 강해 정치인들과 학생, 남녀노소가 많이 찾는 명산으로 유명하다.

따라서 태백문화원에서는 이 '태백산천제' 를 국가적인 행사나 무형문화제로 지정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 태백산 천제단은 화합과 번영을 기원하는 우리 민족의 제단으로 제자리를 찾게 됐다 그리고 태백산천제위원회가 구성, 체계적인 연구와 자료수집으로 전국적인 제례행사로 알려지게 됐다.

천제단은 특히 1991년에 태백향토사연구소의 문화제 지정 건의가 받아들여져 국가지

정중요민속자료(重要民俗資料) 제228호로 지정됐고, 1997년에 태백시에서 제단을 보수하여 오늘의 모습을 갖추었다.

태백산천제가 '정선아리랑' 이나, '강릉단오제' 와 같이 무형문화제로 가기 위해서는 갈 길이 멀다. 우선 시민화합 행사인 태백제와 태백산천제가 비슷한 시기에 열리고 태백산천제는 태백제의 제례행사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태백산천제가 독립된 제례행사로 가기 위해서는 더 많은 프로그램을 안아야 한다. 우선 올해 처음 선보인 일성왕 행차는 태백산천제를 규모가 큰 제례행사로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었다. 일성왕 행차도 행차에서 끝낼 것이 아니라 시내에 천제단이 있는 일성왕 공원을 조성해 천제행사를 재현하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다. 학술대회나 전시, 문화공연으로 천제의 재발견이 기대되는 부분이다. 그리고 국가적인 행사와 함께 국비와 지방비도 지원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는 틀로 만들어지길 기대한다.

태백의 자연자원 그리고 황지연못

태백에는 자연자원도 풍부하다. 낙동강의 발원지 황지연못은 태백시의 중심시가지에 자리하고 있다. 역과 터미널 시장 등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이다. 행사도 많다. 태백을 방문한 관광객들이 제일 먼저 찾는 곳이다.

태백산은 시의 영산이기도 하지만 전국적인 명소다. 해마다 10월3일이면 천제가 하늘에 올려지고 1월1일이면 일출을 보기 위해 일부러 태백산에 어르는 산악인들도 많다. 전국의 산악회에서는 등반대회를 통해 호연지기와 화합을 다짐하고 정치인, 수험생을 둔 학부모, 남녀노소가 찾는 어머니와 같은 산이다.

구문소동의 구문소는 고생대의 자연자원으로 구름다리처럼 생긴 구문소의 거대한 석굴(石窟)이 있으며 이곳에 있는 뚜루내(穿川)의 지부석(地負石)을 자개문(子開門)이라고도 한다. 고생대 화석도 있는 곳이어서 학생들의 지질학문에도 큰 도움이 된다. 특히 조선시대 민중들에게 크게 영향을 끼친 정감록(鄭鑑錄)이란 도참서(圖讖書)가 있다. 전쟁과 기근(饑饉)과 관리(官吏)의 횡포, 과다한 세금에 핍박받던 민중들에게 아름다운 이상향(理

想鄕)을 제시하여 그들에게 무한한 동경의 대상이 되게 한 비전(秘傳)으로 내려오던 비결서(秘訣書)로 남쪽에서 구문소를 지나면 이상향을 만난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그래서일까 20세기초에서부터 80년대까지 우리나라 석탄산업을 이끌 태백의 탄광은 우리나라 연료의 주산지였다.

이외에도 한강의 발원지 검룡소는 이제 국립공원에 포함돼 더 많은 사람들이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자연자원으로 한 문화제도 볼거리다. 구문소의 용축제와 검룡소에서 행해지는 한강발원제, 황지연못에서 열리는 태백문화원 주관의 낙동강발원제는 태백여름축제의 시작인 발원지축제의 서막을 알리고 있다. 자연자원을 매개로 한 축제행사와 함께 주변의 접근로 확충, 볼거리의 다양화는 관광객들을 끌어들이기에 충분하다.

사례로 본 도시문화의 발전

대전은 경부선과 호남선 철도의 분기점이다. 은행동과 대흥동 선화동 등 대전시 중심부는 일제 강점기때 조성된 직교형 도시다. 많은 도시학자들이 대전시를 도시계획의 모델로 삼기도 했다. 대전역과 구)충남도청 건물간 중앙로간 약 1.1km구간이며 왕복6차선 도로다. 대전지하철1호선이 통과하며 대전의 유통, 경제의 중심축이다. 그리고 구)충남도청 건물은 지금은 역사문화를 접할 수 있는 곳이 됐다. 충남도청은 2012년 12월26일 현재의 홍성지역으로 이전했으며 현재 건물은 대전근현대사전시관(구 충남도청 본관)이 됐다. 3층에 오르면 대전시내 중심부가 한 눈에 보인다. 대전의 구한말역사에서부터 현재까지 잘 전시돼 있다. 시내 중심가에 이러한 전시관이 있다는 것이 부럽게 느껴진다. 건물의 외벽은 벽돌을 불에 구워서 아주 튼튼하게 만들었다는데 일본인에 의해 지어졌다는 건물이 이제는 관광명소가 됐다.

전국에 이러한 근대유산문화재들이 곳곳에 있다. 서울역이나, 서울시청 건물, 지금은 사라진 경복궁앞 국립중앙박물관(구 중앙청건물) 등. 원주에도 이러한 건물들을 볼 수 있다. SC제일은행건물(조선식산은행건물)이나, 조형물로 원주역의 급수탑, 원동성당, 강원

감영의 포정루 선화당, 원주세브란스 기독병원내에 있는 서미감병원 등이 있다. 부산이나 대구 광주 등 도시내 곳곳에 이러한 근대문화유산과도 같은 건물과 문화재들을 보면서 지역의 도시문화를 접할 수 있고 그리고 전주 같은 경우는 한옥들이 많아 한번쯤 가보고 싶은 곳이기도 하다.

유럽의 여러 도시들은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건축물이 많다. 철거보다 보존과 정비로 잘 다듬어진 도시들이다. 이탈리아는 최근 지진으로 인해 많은 중세건축물이 붕괴되거나 훼손됐다. 아쉬움으로 남는다. 숭례문을 보면서 문화재 복원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됐다. 옛 모습은 사라지고 그저 현대기술로 남은 모조품이 되어버렸다. 물론 몇 몇 도시의 사례들을 접했지만 태백에서 찾을 수 있는 문화는 더러 있다.

태백은 광산으로 인해 조성된 도시다. 따라서 이와 유사한 시설물과 건축물들이 많다. 극장도 그러하다. 황지극장이나 구)시청건물(현재 고려의원) 철암역 앞의 탄광문화역사촌 등은 잘 보존해야할 시설이다. 문곡소도동의 태백체험공원내 탄광사택촌전시관은 옛 멋을 빼앗아버렸다. 배수시설이 이곳의 풍경을 이질감있게 만들었고 실제 거주하기 어려운 환경이 되었다.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한 사택촌. 구멍가게나 민속주점 등은 상상속에서만 존재한다. 용인의 한국민속촌과 같이 실제 거주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훌륭한 탄광마을이 되었을 것 같다. 그렇다해도 이러한 시설물들은 태백의 문화를 알리고 있었다. 태백을 알려면 광산을 빼 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기에.

맺음 말

지금 태백은 탈바꿈 중이다. 황지연못 바닥이 정비되고 호텔 메르디앙은 철거준비중이다. 곳곳의 건물이 헐리고 신축공사가 한창이다. 보도블럭은 전선지중화 공사로 인해 대리석으로 바뀌고 있다. 깔끔해져가고 있는 것은 현대화의 과정이기도 하지만 한켠으로는 옛 모습을 잃어버리는 아쉬움을 갖게 한다. 황지와 장성, 철암이 옛 모습을 점차 잃어가고 있다. 그래서 일까 통리는 도시재생이라는 브랜드로 가치를 얻으려 하고 있다. 그런데 이곳에서도 도시계획이 황지와 장성을 닮아가고 있다.

하나를 얻으면 또 하나를 잃는다. 현재 남아있는 탄광의 흔적은 태백체험공원내 구)함태탄광, 통리의 한보탄광, 철암역의 선탄장과 현재 가행중인 태백광업소와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 등이다. 구)함태탄광은 태백체험공원으로 운영중이며 구)한보탄광은 구상중이다. 장성광업소는 폐광 이후 석탄문화재로 보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과거의 모습을 간직하면서 발전하는 모습을 볼 수 없을까. 그래서 황지연못의 바닥을 태백문화에 투영해 보았다. 단단한 대리석의 고급스러운 현대식 바닥이 아닌 단단한 흙(마사토)이었으면 어떠했을까? 한 공무원의 답변이 귓전에 아른거렸다. 균열의 우려가 있어 이렇게 시공할 수 밖에 없었다고. 과연 그것이 최선이었을까. 서울 송파구의 공원은 인도가 마사토(흙)으로 되어 있다. 물빠짐이 좋다. 영동고속도로 덕평자연휴게소 역시 자연을 최대한 살리면서 조성했다. 그 결과 한국건축문화대상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이곳 역시 공원인근에 인조 조형물과 대리석 인도는 최소화한 흔적이 보인다.

황지연못은 태백을 찾는 관광객들에게는 태백을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관광지이면서 문화공간 인 만큼 신중을 기해 정비사업을 펼쳐야 한다. 역사를 간직한 공원이 필요하다. 고생대자연사박물관이나 석탄박물관이 시내 중심부에 없음은 아쉽다. 둘 중 하나라도 시내에 있어 역사문화전시관으로 만들어 태백의 역사를 알 수 있는 역사문화교육의 장으로 활용됐으면 하는 생각을 갖게 한다. 태백시가 추진한 오투리조트도 지금은 민간기업에 매각됐지만 이것도 과정을 전시관에 담았다면 태백의 역사로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태백다움의 문화는 어떻게 만들어가야 하는지 궁금증을 안고 마무리한다.

1.태백산천제
해마다 10월3일 낮12시가 되면 태백산천제위원회 주관으로 태백산천제가 올려진다. 제주인 초헌관이 시장으로 전국적인 문화행사로 알려져 있다.

2. 대전근현대사전시관
일제 강점기때 건축된 대전근현대사전시관(구.충남도청건물 본관) 건물의 외벽은 벽돌을 불에 구워서 아주 튼튼하게 만들었다. 황금색 외벽이 눈에 띄며 3층에 오르면 대전시내 중심부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다.

3. 구)태백시청 건물
1981년 황지읍과 장성읍이 태백시로 승격된 뒤 초기에 시청사로 사용되어진 건물. 황지동 244-3번지 현재의 건물이 준공돼 이전하기 까지 이곳에서 행정업무를 보았다.

4. 황지연못 공원
2013년 태백시가 공원정비사업을 마무리하고 바닥을 대리석으로 교체했다. 겨울철 보행자들이 결빙으로 인한 미끄러움으로 안전사고의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삼척향교 82회 장의 중국 곡부 외 성지견학을 다녀오면서

정복남

시인

· 『순수문학』시 등단 · 제1회 월인문학상 · 시집 공저『가지마다 피워 내는 오르가즘』

· (전)한마음문학회 회장 · (현)유교신문 삼척 · 태백 주재기자/ 월간『청춘시대』명예기자

2015년 4월 6일부터 4월 9일까지 삼척향교에서 2014년 82회 장의로서 공부자 사상을 수학하고 그 대미를 장식하기 위해 4일간의 일정으로 중국 제남, 추성, 곡부를 견학하면서 다시 한번 공부자의 "인의예지"를 마음속에 새기는 계기를 되었다.

2015년 4월 6일은 인천공항에서 출발하여 제남공항에 도착했는데 '만만디'가 익숙한 중국인들의 특성 때문일까 입국 수속이 너무 늦어 심기가 약간 불편 하였지만, 산동 성 대명호에서 유람선을 타고나니 호수의 탁 트인 전경이 조금 전의 답답한 심경이 누그러지는 듯하였다.

저녁식사를 마치고 진상택전교님을 비롯한 일행 32명은 중국 제남의 풍경도 즐길 새 없이 여독을 봉황호텔에서 풀었다.

4월 7일은 중국 태산의 뿌리라고 일컫는 지하대협곡을 관람하였는데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우리나라의 동굴이 볼거리가 더 풍부하다는 생각을 하였다.

당초에는 지하대협곡 동굴탐험을 하고 태산에 오를 예정이였으나, 일기가 고르지 않은 관계로 케이블카가 운행되지 않아 3일 날 일정인 추성의 맹부, 맹묘를 견학했다. 맹부는 맹자의 직계자손이 거주하는 저택이며, 맹묘는 맹자의 제사를 지내는 사당이라고 한다.

곳곳에 수많은 비석들이 모두 갈라지고 깨어진 것을 철사로 묶어놓아 이상하다고 생각하였는데, 중국 현지 정만가이드 말에 의하면 문화대혁명(중화인민공화국에서 1966년부터

1976년까지 마오쩌둥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사회주의 운동)때 모든 비석들을 부수었다고 한다. 중국의 아픈 과거사에 마음이 좋지 않았다. 녹록치 않은 거리를 걸어서 일까 다리가 많이 아팠는데 중국 특유의 발 맛사지를 받고 권리빈사호텔에서 이튿날 일정을 마무리 했다.

4월 8일은 곡부 견학을 하였는데 곡부는 유교의 창시자인 공부자의 고향이라고 한다.

곡부에서는 북경의 고궁, 태안의 대묘와 더불어 중국 3대 건축이라 불리는 공묘를 견학하였다. 공부는 공부자의 자손들이 대대로 살아온 장원이다. 수많은 묘비의 비석이 숲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으로 공부자와 후예들이 묻힌 공씨가문의 가족릉이 공부라고 한다. 공묘 가는 길은 좌우로 많은 나무들이 도열해 있었는데 좌측은 72그루, 우측은 73그루라고 한다. 좌측의 72그루는 공부자의 유명한 제자를 뜻하며, 우측의 73그루는 공부자께서 73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라고 한다. 공묘에서 공부자께 멀리 한국에서 공부자 사상을 따르는 유생으로서 문안을 드리고 어제 고르지 못한 일기로 인해 오르지 못한 태산을 올랐다.

태산은 중국의 오악 중 가장 으뜸인 산이라고 한다.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와서 인지 해발 1,545m의 산이 그다지 높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 시조 싯구처럼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아래 뫼이로다.'

태산을 올라가는 풍경이 낯설지 않아 내가 전생에 중국인이 아니였을까! 하는 망념도 해보았다. 옥황정에 오르니 마치 하강한 선녀가 된 듯 착각도 하면서 마음까지 즐거워졌다. 첫날 묵은 봉황호텔에서 3일 날 일정을 마무리 하면서 공보가주도 마시면서 동임들과의 마지막 날 밤을 보냈다.

4월 9일은 중국 최초의 성립박물관인 산동성 박물관을 견학하고 제남을 출발해서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3박 4일 짧은 일정과 32명의 동행이 있어서 속속들이 견학 할 수는 없었지만 그동안 삼척향교에서 1년 동안 함께 수학했던 동임들과 진상택 전교님과 정수철 사무국장님과 함께 공부자의 탄생지를 둘러 볼 수 있어서 행복한 3박 4일이였다. 공부자님의 사상인 '인의예지'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우리 삼척향교의 무궁한 발전과 82회 동임들의 건승을 바래본다.

태백산 천제 참제기 (太白山天祭 參祭記)

이 상 출

태백문화원 감사

1. 마음을 가다듬어

동이족(東夷族)인 우리 한민족(韓民族)이 태백산 천제(太白山 天祭)를 언제부터인가 누군가에 의해 아마도 수천년간 태백산 정상에 있는 천제단(중요민속문화재 제228호)에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늘님(하느님,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온 온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제천의식은 부여의 영고, 고구려 동맹, 동예의 무천. 삼한시대의 특히 백제의 소도와 같은 것으로 모두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예배(禮拜)의식이다. 예배는 예(禮)를 갖춰 하나님의 도움으로 결실을 맺은 오곡백과로 빚은 술(天酒)을 따른 잔을 드리고 엎드려 절(격식)을 하는(갖추는) 의식이다. 동시에 그에 대한 경외심으로 영광을 드리는 노래와 춤을 추는 행위를 포함한다.

몇 해 전에 어느 여자 목사 한 분이 미신(迷信)이라 하여 천제단을 허물어뜨려 문화재 보호법을 어겨 구속되었다니 참으로 한심하다.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을까?

믿음(信)은 사람(人)의 말(言)을 믿는 것이다. 성경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 야곱이 눈먼 아버지 이삭을 속여 팥죽 한 그릇에 형님에서의 장자권을 빼앗고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도망가던 중 예루살렘 북쪽 벧엘에 이르러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은 이야기가 있다. 즉, 야곱은 돌을 베게 삼아 잠깐 잠을 청했더니 꿈속에서 하나님이 만복(萬福)을 주시겠다고 하여 꿈을 깨고 보니 바로 여기가 하나님이 계신 곳임을 깨달고 야곱은 베고 자던 돌로 기둥으로 세우고 하늘에 제사를 지내기 위해 단을 쌓은 사실을 전하고 있다. 그런 야곱에게도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내용인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던 영국의 여류 극작가 S.F Adams(1805~1848)는 어느 날 인생을 정리하며 이 부분을 읽다가 성령(聖靈)의 영감을 받아 지은 노래가 찬송가 338장(통364장)이다.

우리 한민족도 아주 먼 옛날부터 백두대간의 여러 산들 중에 한가운데 있는 신령스럽고 크고 밝은 태백산 그 정상 천제단에서 창조주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다는 사실도 그와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주 속 태양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별 지구의 한 가운데 아시아의 중심이자 동북아의 관문인 대한민국 한반도의 척추 허리부분에서도 똑같은 꿈과 비전을 품어보자!

1567m 태백산은 우리에게 희망은 준다. 태백산을 모산이자 영산이란 한다. 위로는 머리 부분에 백두산이 있고, 아래 부분에 꼬리 지리산에 있으며 또한 땅 끝 마을 해남 앞바다 건너 제주도 한라산까지 이르러 대한민국의 척추라고 하는 백두대간을 일제시대 때 비하(卑下)하여 태백산맥이라고 불렀지만.

태백산은 제 자식이 아무리 속을 썩이는 애물단지라도 그를 용서해 주고 따뜻한 가슴에 품어주는 산으로 삼천리 금수강산을 품고 풀어주는 어머니의 품과 같다 하여 모산(母山)이라 부른다.

또한 태백산은 신령스러워 우주 속 모든 상서로운 기운이 하나님의 집(하늘나라, 天國)에서 하늘의 문이 처음 열려 하늘아래 첫 동네인 이곳으로 한민족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하늘의 정기를 불어넣어 준다 하여 영산(靈山)이라는 접두어를 붙인다.

삼수령(三水嶺) 피재, 피난(避難)의 언덕(고개)의 전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 내려온 빗방울 삼형제가 있었는데 첫째는 검룡소에서 시원(始原)한 생명수가 되어 서쪽 한강으

로 흐르고, 둘째는 황지연못에서 시원한 생명수가 되어 남쪽 낙동강으로 흐르며. 셋째는 피재에서 시원한 생명수가 여러 개 합쳐 오십천을 이루어 동쪽으로 흘러 바다에서 서로 만난다고 한다.

그래서 금대봉에서 피재에 이르는 백두대간의 삼수령(실제는 그 위쪽 삼수꼭지점)에서 시원한 생명수(한민족의 정기)는 통일을 염원하는 '생명의 강' 이 되어 평양 대동강으로 흐르며, 이 생명의 강이 바로 통일을 준비하는 한민족의 비전이며 그 비전은 다가오는 평창동계올림픽이 개최될 때 그 절정이 될 것이라고 한다.

즉, 그리스 아테네에서 채화된 올림픽성화가 30년전에 경기도 강화군 마니산 참성단에서 채화된 한국성화와 1차 합화되어 88서울하계올림픽의 횃불이 되어 세계만방을 비추었듯이 30년 만에 강원도 태백시 태백산 천제단에서 채화된 한국성화가 2차 합화되어 18평창동계올림픽의 횃불이 되어 세계만방을 비출 것이다.

그 횃불이 바로 인도 시성 타고르가 일찍이 읊은 '패자의 노래' (1919)에 이어 두 번째로 읊은 '동방의 등불' (1929)이라고 믿는다. 88서울하계올림픽과 18평창동계올림픽이 어찌 한반도 대한민국에서 두 번이나 개최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평창동계올림픽은 2018년 2월 9일 개최되어 동년 2월 25일 마지막 날 폐막식이 있는 날이기도 하며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이 취임식하는 날이다!

아시아의 중심이자 세계의 중심이 된 평화올림픽 개최국 대한민국 새로 선출된 차기대통령이 남북평화통일과 세계평화통일을 위한 메시지를 발표하는 날이 될 것이다!

그러니 한민족의 5000역사의 시원(始原)인 되는 백두대간의 모산이자 영산 태백산 천제단을 경기도 강화군 마니산 참성단과 비교할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필자는 태백시민으로서 강원도에 22번째 국립공원 내 태백산 천제단이 있어 좋고 1878년전 138년 신라 제7대 일성왕이 친히 태백산에 올라 천제를 지냈고, 300년 제15대 기림왕이 우두주(춘천)에서 망제를 지냈다니 자랑스럽다.

2. 태백산 천제를 참제하고

필자는 태백산을 오를 때마다 좋아하는 싯귀를 떠올린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시편121:1~2) '

올해는 단기(檀紀) 4349年. 서기(西紀) 2016年! 10月 3日, 개천절(開天節)!

하늘이 처음 열린 날, 그래서 우리시는 이 날을 시민의 날로 정하고 시민화합의 한마당 잔치, 재36번째 태백제를 벌였다.

'우리가 물이라면 새암이 있고 우리가 나무라면 뿌리가 있다. 이 나라 하나님은 단군이시니' (개천절 노래)

단군이 우리나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아시아의 서쪽 언약백성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있고 또 하나의 선민 대한민국 알이랑 민족에게는 단군 하나님이 있다.

천제준비는 거의 한달 전부터 시작한다. 우선 천주(天酒)를 빚기 위해 미리 태백산에 오른다. 올해 처음으로 국립공원으로 바뀌어 태백산 천제단에 오르기 전에 국립공원태백관리사무소에 사전 연락을 했다.

밤새 비가 왔다. 천제봉행은 일기가 불순해도 상관하지 않고 매년 지낸다. 그동안 천제에 참제 하지 못해 죄책감이 들었다. 평창올림픽을 코 앞두고 미룰 수가 없었다.

아침 일찍 태백문화원에 들려 여느 해와 같이 올해도 김해운 원장을 비롯한 직원이 천제위원들과 함께 며칠간 꾸린 짐을 차에 나누어 실었다.

천제를 지내기 위한 짐은 무려 120여 개로 차량으로 우선 중간지점인 유일사 까지 옮기면 그곳에서부터 정상까지 성좌시위인 육군 제8087부대 2대대 장병들과 원장을 비롯한 전 직원들과 천제위원들은 물론 선녀들 모두 동참하여 짐 보따리를 하나 둘씩 이고 지고 나른다.

올해 1787년 만에 처음으로 복원한 일성왕 천제봉행 행차가 생각났다. 태백의 어느 쪽으로 들어와서 어느 길로 올랐을까 생각하니 참으로 흥미로웠다.

정상에 오르니 흐린 날씨에 바람이 몹시 차고 너무 불어 몸을 가누기가 어려웠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구름떼 같이 몰려든 참제객들이 직접 써서 올리는 정성어린 소지에 담긴 소원들을 눈 여겨 보았다. 수능고사를 앞두는 부모의 간절함과 결혼을 미루는 자식들에 대한 걱정, 남편에 대한 사업번창, 가족들의 건강 등등 여러 가지 소원들을 보며 편하지 않은 가정이 없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다.

흥미로운 것은 자신의 가족에 대한 소원보다 무엇보다도 나라와 민족을 위한 소지가 더 많았다.

어느새 천제단 주위에 제물이 올려지고 제단 주변에 세 겹으로 금줄이 쳐졌고 소지들이 꼽힌다. 그리고 주위에 일월성신기와 28수기가 펄럭이고 있었다.

태백산 천제는 식전행사로 풍물을 울리며 천황사설을 구송으로 신을 맞이하는 공연(영신굿)으로 시작한다. 이어 집례가 천제 열림을 알리고 내빈의 축사가 이어진다(개의). 초의(草衣)를 입은 번시관(燔柴官)이 쑥을 들고 등단하여 쑥을 태워 천제를 알리고(燔柴禮), 신을 내리게 한 후(降神禮), 천단에 천주를 바치고(參神禮), 이어 穀贄(곡지) · 絲贄(사지) · 貨贄(화지)를 바치고(奠幣禮), 또 天水(천수) · 天菜(천채) · 天蔬(천소) · 天果(천과) · 犧牲(희생)을 바친 후(進饌禮), 하늘에 글을 고한다(告天禮). 초헌관 · 아헌관 · 종헌관 순으로 천잔을 올리면서(獻酌禮), 신을 전송하고(送神禮) 다시 삼헌관이 등단하여 음복하고(飮福禮) 제주는 희생의 귀를 잘라 신에게 바치고(望燎禮). 다시 삼헌관은 등단하여 소지하면(燒紙禮) 끝이 난다.

동시에 참제객들에게 천주와 제사음식을 골고루 나누어 음복하게 한다.

3. 태백산에서 내려오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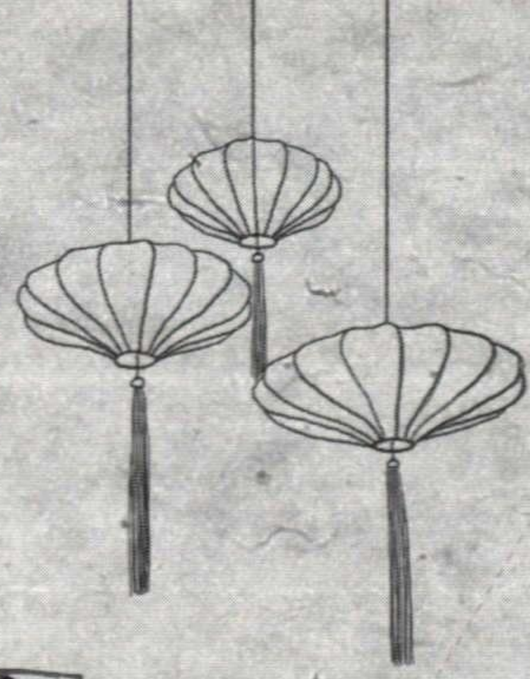
– 평창동계올림픽에 거는 기대–

앞으로 태백산 천제는 오는 2018년 2월 9일 평창동계올림픽이야 말로 남북평화통일과 세계평화통일을 위한 지구촌 축제의 전초전이며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코앞에 두고 태

백산 천제단은 그 어느 때보다도 큰 의미가 있는 곳이란 것을 알게 되었다.

태백산 천제를 국가적 행사로 승화시키고 유네스코 무형문화재로 등록해야 할 귀중한 자원이다.

이번 태백산 천제에의 참제는 모든 국민들은 서로 말하지 않아도 마음속으로는 그 소원이 한결 같았음을 알게 되었고 이것이 바로 우리 한민족의 긍지이며 자랑스런 애국심이 아닌가 싶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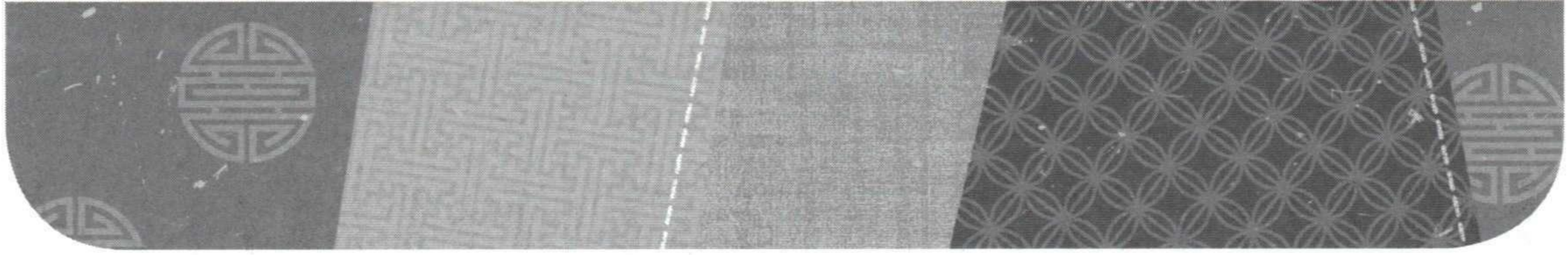
태백문화

초대시

The Taebaek Culture Journal

태백산 문(太白山 門), 달빛-양진모

불로동 고분군-정복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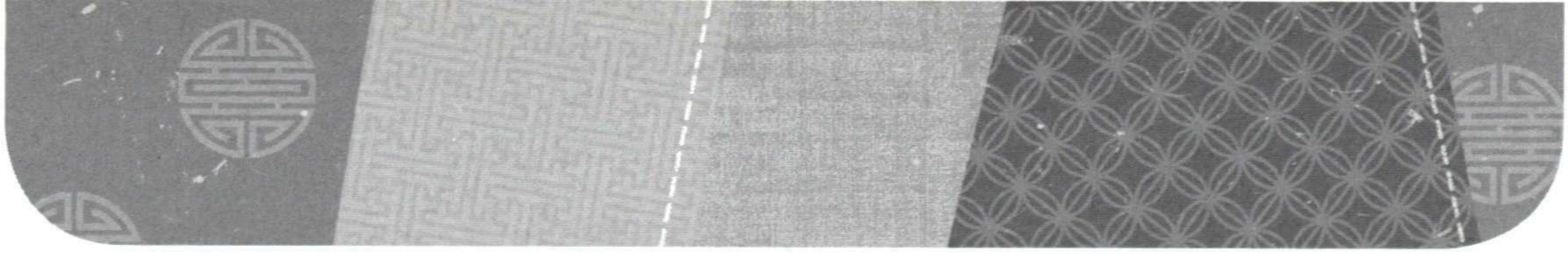
태백산 문(太白山 門)

시인 양진모

위 아래로 열려 있는 문(門)
산자는 아래로 혜(慧)자는 위로
위로
산등을 타는 바람처럼
안개비 젖은 인연처럼
산자락 오색물결
산문에 다다르고

주목의 수령만큼
원(願)을 들어주는 천제단
취(取)하지 말고
내려 놓으라하고
하늘 끝 바라보는 문수봉

용정수 한 모금
자손만대 이어가는
태백산 문



달빛

세월을 업고
숨차게 오르던
청춘

굴곡진 능선마다
묻혀있는
후회 · 추억 · 사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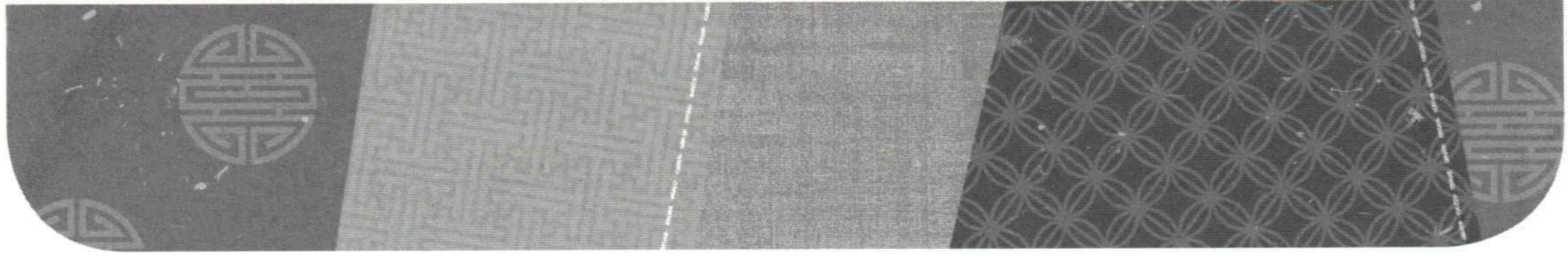
세상 어디 내 것이 있으랴

좋은 사람
싫은 사람
不二가 아닌 듯
무심히 비추고 가는

달빛

양진모

2006 「좋은문학」시 등단
(전)한마음문학회 회장
(주)의정산업 대표
대한전문건설 태백시협의회장
현.태백문화원 이사



* 태백문화원 문화유적 답사 참가기

불로동 고분군

시인 정복남

사적 제262호
옛 조상의 유해
잠들어 있는
대구 불로동 고분군

외형이 정확하지 않은
기를 제외한
211기의 유해가
고이 잠들어 있는 곳

고분군 벌초작업 중
불어오는 바람
아득한 삼국시대
풀 향기로 다가오는
어느 조상님

정복남

· 『순수문학』시 등단 · 제1회 월인문학상 · 시집 공저『가지마
다 피워 내는 오르가즘』
· (전)한마음문학회 회장 · (현)유교신문 삼척 · 태백 주재기자/
월간『청춘시대』명예기자

연 혁

1984. 01.	황윤덕씨 등 19명이 태백문화원설립추진위원회 구성
1984. 08. 17	문화원 공보부 법인설립허가. 황윤덕 초대원장 취임
1984. 10. 01	태백시 장성동 69-2번지에 태백문화원 개원
1985. 07. 18	운영위원 위촉 이진호씨 등 12명
1986. 12. 31	민속놀이 "태백갈풀썰이" 등 12개 사업완료
1986. 02. 27	제2차 정기총회 개최
1986. 07. 21	문공부로부터 정관변경허가. 부원장제도 신설
1986. 12. 31	청소년백일장 및 사생대회 등 15개 사업완료
1987. 02. 24	제3차 정기총회 개최
1987. 12. 31	"태백문화" 지 창간호 발간 등 13개 사업완료
1988. 03. 24	제4차 정기총회 개최
1988. 08. 16	임시총회 개최
1988. 12. 31	사시랭이발굴사업 및 웅변대회 등 10개 사업완료
1989. 03. 24	제5차 정기총회 개최
1990. 03. 06	제6차 정기총회 개최 – 정관개정
1990. 06. 13	문화부지정 90년도 시범문화원 선정
1990. 10. 16	임시총회 개최 – 김영훈 부원장선출
1990. 12. 31	불우소년소녀가장돕기 통기타콘서트 등 14개 사업완료
1991. 02. 27	제7차 정기총회 개최
1991. 12. 31	폐광기록사진집 "막장사람들" 발간 등 12개 사업완료
1992. 02. 27	제8차 정기총회 개최
1992. 12. 31	전통향토음식솜씨대회 등 13개 사업완료
1993. 08. 17	제3대 우성조 원장 취임
1993. 12. 31	효자비건립 등 15개 사업완료
1994. 04. 18	문화체육부로부터 한국문화학교 태백문화학교 설립인가
1994. 12. 31	문화학교 운영 등 16개 사업완료
1995. 02. 25	제11차 정기총회 개최
1995. 12. 31	태백문화 제9집 발간 등 15개 사업완료
1996. 02. 25	제12차 정기총회 개최
1996. 10. 25	신축문화원 원사 이전
1996. 12. 09	태백문화원사 준공식
1996. 12. 31	백일장 등 12개 사업완료
1997. 03. 11	제13차 정기총회 개최
1997. 12. 31	한강대제 등 12개 사업완료
1998. 02. 24	제14차 정기총회 개최

1998. 12. 31	솟대복원사업 등 14개 사업완료
1999. 12. 31	제15차 정기총회 개최
1999. 04. 23	임시총회 개최 – 우성조 원장 연임
1999. 12. 31	태백학술대회 등 22개 사업완료
2000. 02. 29	제16차 정기총회 개최
2000. 12. 31	태백산천제 등 23개 사업완료
2001. 02. 27	제17차 정기총회 개최
2001. 12. 31	전통음식솜씨대회 등 23개 사업완료
2002. 02. 27	제18차 정기총회 개최
2002. 12. 31	초금연주회 등 21개 사업완료
2003. 03. 28	제19차 정기총회 개최
2003. 04. 15	임시총회 개최 – 제6대 김강산 원장 선출
2003. 12. 31	낙동강발원제 등 22개 사업완료
2004. 02. 25	제20차 정기총회 개최
2004. 12. 13	문화원사 증축 준공
2004. 12. 31	태백산천제 등 23개 사업완료
2005. 03. 22	제21차 정기총회 개최
2005. 12. 31	생활문화실천강연회 등 21개 사업완료
2006. 03. 07	제22차 정기총회 개최
2006. 12. 31	태백산천제 등 23개 사업완료
2007. 02. 27	제23차 정기총회 개최 – 제7대 김강산 원장 선출
2007. 12. 31	태백산천제 등 21개 사업완료
2008. 02. 12	임시총회 개최 – 제8대 권영한 원장 선출
2008. 02. 15	제24차 정기총회 개최
2008. 12. 31	태백산천제 등 12개 사업완료
2009. 02. 25	제25차 정기총회 개최
2010. 05. 27	임시총회 개최 – 제9대 김강산 원장 선출
2010. 12. 31	태백산천제 등 12개 사업완료
2011. 02. 27	제27차 정기총회 개최
2012. 05. 25	임시총회 개최 – 제10대 김해운 원장 선출
2012. 12. 31	낙동강채수제 등 15개 사업완료
2013. 02. 27	제 29차 정기총회 개최
2013. 12. 31	태백산천제등 17개 사업완료
2014. 12. 23	태백시지명지발간 및 20개사업완료
2015. 12. 31	어르신문화활동가양성사업 및 16개사업완료
2016. 12. 31	어르신문화활동프로그램 및 14개사업완료

2016 태백문화원 임원 명단

직 위	성 명	휴대폰	주 소
고 문	황윤덕	02-391-7394	서울시 종로구 지하문로 40가길 33(부암동)
	장인원	011-372-8478	태백시 삼수동 253-7번지 자혜의원
	우성조	010-9581-2714	태백시 문곡 소도동 27-9번지
	김강산	010-5364-3161	태백시 황지동 38-46
원 장	김해운	010-5374-5885	태백시삼수동758(문성사)
부원장	김영호	010-9917-5161	태백시 방터골 1길 32 10/3
이 사	배팔수	010-2369-3288	태백시 문화로 6-8 이화연립306호
	조미영	010-4370-9867	태백시 고원로 167 대윤A 2-506호
	양진모	010-6371-5074	태백시 고원로145 대림 4차 107호
	심우섭	010-9057-7444	태백시 태백로 902 1층 태백교차로
	박영숙	010-2665-7059	태백시 고원로 61 유진 1차A 502호
감 사	이상출	010-2712-6089	태백시 태백로 758 사랑의집 가동 102호
	장한결	010-6688-1733	태백시 천제단길 192 (소도동)

사무국 | 사무국장-장화윤 / 과장-김수빈 / 직원-전수진

문화학교강사

과목	강사명	연락처
노래교실	신 용	010-5374-2351
하모니카	이광수	010-8590-4206
건강기체조	이혜선	010-7322-1735
라인댄스	정순란	010-4662-2826
중국어	이홍옥	010-3380-2369
색소폰	최종수	010-5372-0355
토들러동작놀이	조영미	010-4735-4220
전통가락	박용문	010-5366-4556
자 수 / 수예반	조미영	010-4370-9867
장구춤	김희정	010-6332-6628

2016 태백문화원 회원 명단

성명	주 소
방춘옥	태백시 수아밭길 214-9
유운자	태백시 서황지로2길7 시민연립 다동 102호
박읍동	태백시 태백로 2302-12(동점동)
황선자	태백시 짐대배기 1길 31
안화자	태백시 황연동 통동 67길
이상순	태백시 감천로7 1주공A 8동105호
권기화	태백시 감천로7 1주공A 3동 308호
이승자	태백시 철암동 삼방길 주공A 101-1002
손후남	태백시 감천로 7 5동103호 (주공A)
임순자	태백시 유진3차 608호
노옥자	태백시 엄나무정4길 14
전명옥	태백시 서학1길39-5 서학A 1동 203호
이학자	태백시 감천로7 1주공A 3동407호
송용순	태백시 전나무4길
심정자	태백시 솔안길 26-3
장춘순	태백시 황지동1길 남청아파트 805
김순자	태백시 감천로7 1주공A 6동402호
정정옥	태백시 황지남3길 11-6
복능순	태백시 황지동 금계1길 15-3
송귀자	태백시 장성로 103
조경은	태백시 철암동 상투바우길 9-1
이정희	태백시 철암동 동태백로 471-4
김춘옥	태백시 통동 통리재길 8번
구옥예	태백시 동태백로465 육성아파트 307호
박순희	태백시 문화로 6-8 이화연립306호
홍정희	태백시 황지로29 2주공A 209동204호
김희순	태백시 청솔길8 청솔A 101동506호
김순남	태백시 황지동 대림3차A 301동206호
최점남	태백시 장성동 협심길2 협심A 12동105호
전선옥	태백시 황지남1길 남청A 1107호
박산옥	태백시 장성동 신촌길 27
박용문	태백시 서황지로2길7 시민연립 다동 101호
장화윤	태백시 태백산로 4404
이규화	태백시 장성동 신촌길2호
위재민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영흥리 1013-8
손장봉	태백시 태붐로 20. 401

태백문화

2016 통권 제28집

http://www.taebaekculture.com

태 백 문 화 원

강원도 태백시 태백로 1136

Tel. 033)553-3161 Fax. 033)553-2977

www.taebaekculture.com